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새 땅’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코스모스의 창조

2021년 3월 19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삶은 한 사람의 생애 이상이였다.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아무도 그를 잊지 못했다. 아버지를 보내고 나는 죽음과 내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내세에 관해서 가장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머물 거라는 주장이다. 물론, 이런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다. 죽은 성도들은 지금 실제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다(예: 고후 5:8; 빌 1:23; 계 6:9-10).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만날 미래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다. 지난 백 년간 복음주의자들은 천국에서 맞을 영원한 상태 그 자체보다는 그 전에 만날 상황, 즉 환난의 본질, 천년 왕국 등을 규명하는 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오늘은 성경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 과연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고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새로운 코스모스

요한계시록 21-22장에서 우리는 영원한 상태의 본질에 대한 가장 자세한 설명을 만난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이 내용이 드러내는 절정의 환상이 다름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열왕기 상,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에서 가져온 구약의 상징주의에 근거한

다는 점이다. 따라서 계시록 21-22장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21:1; 사 65:17; 66:22)을 상상하지만, 그는 즉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계 21:2; 사 52:1; 62:1-2 참조)라고 말한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주에서 도시로의 전환은 자연스럽다. 요한은 묘사하는 건 두 가지 다른 현실이 아니라 하나이다. 요한계시록 21:3이 들려주는 이 이미지에 대한 해석에 주목하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보라,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과 함께 있는

나라.’ 하더라”(레 26:11-12; 겔 37:27 참조).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과 동일시한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는 나중에 새 우주의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헤친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생명의 강을 보여주었고 ...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더라”(계 22:1-2; 창 2:8-9; 3:22, 24; 겔 47:12 참조). 이 우주적 도시에는 에덴의 특징이 있다. 도시-우주-정원!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각 이미지가 구약, 특히 창세기 1-2장을 떠올리게 한다는 사실을 안다. 따라서 즉시 분산된 점들을 연결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코스모스의 창조

창세기 1-2장의 창조 기록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풍부하고 영향력 있는 본문 중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자신의 거처이자 성소로 기능하도록 의도하셨음을 보여준다. 시편 78:69은 “주님께서 높은 하늘과 같이, 영원히 세우신 땅과 같이 자신의 성소를 지으셨다”고 명확하게 말한다(대상 28:2; 사 66:1-2 참조). 마이클 모랄레스는 “우주는 큰 성전으로, 성전은 하나의 작은 우주로 이해되었다”고 올바르게 결론지었다.

(3면으로 계속)

자녀의 죄는 내 죄가 아니다

죄를 짊어질 만큼 강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당신 집에도 혹시 “그런”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느 가정에나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한다. 가족의 틀을 깨고, 보통은 부모의 틀까지 깨부수는 아이, 그런 아이 때문에 당신은 겸손해질 수 있다. 얼마 전, 나는 사흘에 걸친 여름 훈련에 참석했다. 주최 측은 훈련에 참석하는 부모를 위해 자녀들을 위한 낮 시간 캠프를 따로 준비했다. 집에서 차로 약 6시간 떨어진 곳여서 나는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갔다. 남편은 집에 남아서 직장을 다녀야 했다.

사건

첫날이 끝나고 아이들 식사가 다 마쳤을 때, 아이 중 하나가 그날 동생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동생이 한동안 사라졌나 싶었던 생떼를 부렸다는 게 아닌가? 의자를 던지면서 소리치고 울부짖었던다.

아이가 생떼를 부리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종종 아이 자신의 통제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죄로 뒤덮인 세상에서는 나쁜 의도만큼이나 피로, 미성숙, 과거의 트라우마, 질병, 그리고 발달 장애 같은 요소가 그 원인이 된다. <9면으로 계속>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아리 | 시년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i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주문: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2001-2024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성탄절 칸타타 (세계초연)

Noel, Noel

이상윤 작사
이가영 작곡

지휘 | 양재원
피아노 | 이정현
협연 | FIDES Chamber
Guitar | 이교혁
Soloists(코치)
| 정은지, 송은별, 박영경
영상 | 이지연

일시: 2024년 12월 1일(주일) 오후 5시

장소: 프라미스교회 (담임목사 허연행)
130-30 31st Ave., Flushing, NY 11354

후원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뉴욕교협

뉴욕효신장로교회

프라미스교회

공연문의 917-658-3181, 917-648-1876

전석초대

이 음악회의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와 선교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화환은 정중히 사양하오며 대신 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론

종교개혁주일에 항거한 것을 기억하다



백승철 목사

(사모하는 교회, 시인, 문학평론가)

덴마크(Denmark) 코펜하겐(Copenhagen) 시청사에 들어서자마자 화폭 그림처럼 전시되어 있는 열아홉 작품이 한눈에 스며들었다. 왼쪽 마지막 작품은 빈도하지 상태로 세워져 있었다. 필경 누군가의 작품이 전시될 공간을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다. 간혹 꿈같은 상상이 깨어지지 않을 때를 기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가까워서 열아홉 쌍 동성 커플 결혼사진인 것이 확인되는 순간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그 상상은 조각이 났다.

덴마크는 1989년에 세계최초로 동성 커플에게 이성부부가 행사하는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 시민결합 허용 국가이다. 2001년 세계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이다. 한국의 경우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에 110만이 광화문에 모여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있었다. 모임의 핵심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항거하는 집회였다. 1027 선언문도 발표되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도 집회 이후 100만 성도가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손재익 목사(한길교회 담임)는 개혁정론에 기고한 글에서 "동성혼을 반대하고 합법화를 막는 운동은 정치 행위다. 형식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일 뿐, 내용은 정치집회"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집회를 통해 확실해 드러난 것은 부정적 정정보다는 긍정의 시각이다.

첫째, 교회와 성도의 연합이다. 기독교역사에 한 획을 긋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방향 목적이 뚜렷이 증거 되었다. 둘째, 동성에 관한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선명하게 전파되었다. 셋째,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 대부분 집회가 끝나면 댓글에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데 이번에는 거의 불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글들이 긍정적이었다. 넷째,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이 해소되었다. 110만이 모인 장소가 시작과 전후 변함없이 깨끗한 것과 질서, 진행이 매끄러웠으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일반의 생각이 성경의 차원과 일치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건강하다는 징조가 확인된 것이다. 다섯째, 회개운동이다. 비방, 비판, 정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개별적 신앙의 양태를 살피는 동기가 되었다. 여섯째, 섬김의 자세이다. 이번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담임)는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다.

팔자는 지난 두 주전 시전(대표 이인미 시인)에서 드리는 '시로 드리는 예배'에 격려차 다녀왔다. 그곳에서 동성에 반대 입장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예배 시간에 연합감리교단 캘리포니아 주 연회 관계자를 통해 파면 당한 '로스펠리스교회' 신병욱 목사를 만났다. 그후 교단을 탈퇴하고 '미라클LA교회'를 세워 성경의 길을 걷고 있다.

적어도 신앙인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인간에 대해 편협한 시각으로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변질 시키거나 시대의 조류에 결코 타협할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세상이 바뀌거나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다.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 교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외치는 것이다. 그 힘이 약해지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다. 성도의 사명 역시 이 시대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제자로서 삶의 모형이다.

글이 마무리되는 동안 반동성에 입장을 취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인이 되었다. 또 한번 변혁의 바람이 불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를 도왔던 일론 머스크의 딸, 비비안 제나 윌슨(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이 캐나다로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방송을 통해 흘러 나왔다.

www.epipodo.com

좋은 설교는 때로 고통을 준다

설교는 즐거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지옥에라도 온 것처럼 아프네요.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통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내 설교에 아프다고 말했던 바로 그 해에, 나는 조르주 베르나노스가 쓴 프랑스 고전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를 읽었다. 사제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가르치는 건 결코 쉽지 않아, 아들이야! ... 종종 사람들은 설교를 위로의 진리라고 부르지! 그런데 말이다. 너를 구하는 진리가 먼저 와야 돼. 그리고 위로는 나중에 오는 거야. ... 하나님의 말씀은 빨갛게 달군 쇠야. 그 진리를 가장 잘 설교하려면 집게로 들어 올려야 해. 손으로 잡았다가는 손이 타버릴 테니까. ... 진리를 전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사제는 입이 압타의 함문 같이 붉게 변하겠지. 뜨겁긴 하겠지만 자신에게 만족할 거야. 그가 한 건 설교가 아니야. 기껏해야 얼룩 고양이처럼 으르렁거렸을 뿐이니까. 그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 우리는 누구나 다 모두 반쯤 잠들어 있고, 우리를 깨우는 것은 악마야. 겹세마네에서 사도들은 정신없이 잠에 빠졌지. ... 강단에서 팔을 흔들고 또 무거운 짐을 옮기는 사람처럼 땀을 뻘뻘 흘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어 있는 것은 아니라

대야. 주님께서 가끔 영혼의 유익을 위해 내 속에서 어떤 말씀을 이끌어 내셨을 때, 그건 고통이었어. 고통스러웠기에 나는 지금 기억하고 또 안다고 말할 수 있어.

진리는 왜 종종 아플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기"(히 4:12) 때문이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열고 뼈까지 파고든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과정을 지나야 한다. 그러니까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괜찮다.

설교는 즐거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설교는 즐거움이나 오락을 위해서 고안된 게 아니다. 설교는 정보를 제공하고, 해방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영감을 주고, 맞서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건설하고, 방해하고, 전복하고,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지옥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세워진 거짓의 요새에 대항하여 성령이 시작한 수색 및 파괴 임무이다. 은혜보다는 무덤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외침이다. 설교는 어둠을 몰아낸다.

<3면으로 계속>

교회 행사 | 각종 집회

• 부활절 성탄절 안수식 •

배너 & 현수막 맞춤형 주문 제작 업체
당일 제작 및 배송 | 무료 디자인 제공

influsign.com info@influsign.com

G2G MISSION CENTER

(가족중심 자비량선교회. 미국비영리단체 등록)

* 자녀교육 및 결혼 가정세미나

* 감사나눔 세미나 및 간증설교

[세 자녀가 하버드와 동부 명문대학에 진학, 졸업 후 전문직 취업과 20대 중반 결혼시킨 경험과 노하우 공유]

<감사 이훈구 장로 약력>

* 목회학 석사 및 선교학 박사

* G2G Mission Center (G2G선교회)

설립 및 대표(2013.1 - 현재)

* 감사나눔 공동체:

감사나눔리더(임원) (2023.8-현재)

* 저서: 크리스천 자녀교육, 결혼을 어떻게 시켰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세미나, 간증설교 문의: g2gmission@hotmail.com

교회인쇄물·현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광고 문의

(323)665-0009 | (718)886-4400

info@chpress.net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2024년 제26회 홀사모와 자녀 장학금에 함께해 주신 교회와 단체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17)

홀사모 6명(한국포함) 각 \$3000.00 자녀장학금 3명 각 \$1000.00

작년 이월금 및 올해 후원금 \$33,575.00 지출 \$23,500.00 내년도 이월금 \$10,075.00

제26회 홀사모돕기 지원현황

장인자 사모님(런치버그 한인교회) 대학생 자녀 1인, 에스더 김 사모님(충신교회) 자녀 1인
정효숙 사모님(임마누엘교회), 박경희 사모님, 이남희 사모님(한국) 자녀1인, 이인희 사모님

후원자명단

교회, 노회 협의회

셀리나스한인교회, 미션포인트교회, 미주한인예수장로교회, 이스트베이교역자협의회, 버클리시온장로교회
노스베이장로교회, 심포니교회, 실리온벨리장로교회, 오를랜드연합감리교회, 충신교회

단체

북가주사모회, 현대뉴스

개인

김일순, 무명, 김인숙, 정홍, 김연주, 양상희, 이기준, 이윤호, 김윤수, 배하워드, 조길호/조정애
구자익, 김태호/조정희, 신태환/신영옥, 이태희, 전준현, 주낙영/김민진, 김남호

버클리시온장로교회
Berkeley Zion Presbyterian Church

주소: 545 Ashbury Ave, El Cerrito, CA
문의: 원로목사 신태환 (510)912-1955

* 2023년12월17일까지 현금은 작년이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캐나다 한국/동남아시아	\$100 \$130 \$240	유럽 남미 아프리카	\$240 \$240 \$240
신청유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목 사 ☐ 평신도 ☐	
배달주소			
전화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			
배달주소			
교회/기관명			

E-mail 구독신청: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목사의 묵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스айд장로교회)

하나님 중심의 예배

내가 묵회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

사한 한 올게니스트의 이야기다. 그분은 여집사님이었는데 간질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예배 시 반주 도중 증

상이 나와 뒤로 넘어져 거품을 흘리기 일쑤였다. 그것을 보며 어떤 분이 나에게 예배에 방해가 되니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예배 도중에 사람이 넘어져 그 사람을 일으켜서 업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고 예배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설교가 중단될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 정말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될까? 사람 쪽으로 생각하면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방해가 될까?를 생각해 보니 그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 모습을 무릅쓰고 나와서 반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은 감격하실 것으

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나는 결단하게 되었다.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분을 말리지 않겠다고. 설교가 중단되어도, 찬양이 중단되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집사님 병이 더 악화하여 자기 스스로 반주자 자리를 찾아갈 수 없을 정도가 되자 본인이 사임하여서 그것을 허락하였다. 나는 그러한 나의 결정을 두고두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담당하는 담임목사로서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모든 성도가 불편하지 않게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질서 있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예배 인도자가 늦어도 예배는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믿고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예배에 책임을 맡은 자가 예배에 늦고 자주 이유 없이 빠진다면 당연히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

라면 우리가 불편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견뎌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박근재 목사

(시나브로교회 원로목사)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이유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과 보호하심에 힘입어서 마주치는 이방 족속마다 파죽지세로 물리치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합니다. 드디어,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가장 좋은 지점인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 이르자, 그 지역의 모압 왕 발락은 아주 심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변 ‘브돌’이라는 지역에 사는 점치는 복술가 ‘발람’을 불러오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고대인들은 복술가나 마법사들의 주술을 통한 저주가 초자연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저주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복술가인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발람’ 왕의 초청에 응하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12절).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압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13절). 그러나 모압 왕은 지위가 더 높은 귀족들을 그에게 한 번 더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또 한 번 더 설득하는 데 특별히 17절에서는 모압 왕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세상 최고의 명예와 권력도 야깁없이 제공하겠다는 의미이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발람은 모압 왕의 이 같은 제안을 재차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낱 이방 신에 지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발람의 순종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발람도 내심으로는 모압 왕의 제안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일, 발람이 모압 왕의 제안을 재차 거절할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모압 왕의 사신들에게 전했을 텐데 그보다는 오히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겠다’(19절)고 말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내심 모압 왕의 제안에 현혹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함께 가라”(20절). 자!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12절에서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20절에서는 “일어나 함께 가라”고 말씀하세요. 앞뒤가 맞질 않는 말씀을 하고

람의 이중적인 행태로 인하여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그의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22절). 그런데 안타깝게도 발람은 탐욕스러운 욕심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 보질 못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가 칼을 손에 들고 서 있는

아요. 결국에는 여호와와 사자가 나귀를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막아서지요. 그러자 나귀는 끝내 발람의 발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이번에도 역시 발람이 나귀를 지팡이로 때려요(26-27절). 마침내 참다못한 나귀가 이제는 자기가 직접 입을 열어 발람에게 말합니다. 동물이 말하는 희귀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28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30절). 그때야 발람은 하나님 사자의 모습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알려 줄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생각해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나귀가 말하는 이런 특별한 사건 앞에서 발람은 일단은 멈춰 서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뭔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더욱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우리들도 이 같은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자주 반복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곳에 가거나 혹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이상하게도 어떤 장애나 문제가 발생해서

비밀비재하다는 겁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1902년 카리브해의 한 섬에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화산 분출물과 유독 가스가 8킬로나 떨어진 도시를 30초 만에 덮었어요. 무려 3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현장 근처에서 죽은 동물은 고양이 단 한 마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923년 일본 요코스카 인근 해안 수면에 어느 날, 수천 미터 깊은 바다속에 사는 물고기가 갑자기 떠올랐고 그 이틀 뒤에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 같은 재해를 미리 감지할 수 있었을까요?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이들만의 ‘육감’과 ‘직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자연 재난에 대한 이들만의 예민한 ‘예지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만의 ‘육감’과 ‘직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만의 ‘예지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발람은 이방 선지자니까 설령 하나님에 대한 ‘육감’과 ‘직감’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지능력’이 없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도 미처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민한 ‘예지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운전자가 차를 안전하게 몰기 위해서는 신호등에 예민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인생의 차를 안전하게 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호’에 예민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는 달리 계속해서 빼격대고 어긋나기만 하십니까? 여러분의 통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꾸 똑같은 일이 이상하리만치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때, 마땅하게 가던 인생의 길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러주실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뭔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지는 않으실까?’ 한 번쯤은 심각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영적인 촉각을 날카롭게 세운 하나님 자녀의 신앙과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mission4jsc@gmail.com

하나님의 신호

민수기 22:21-34



게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똥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경고를 하셨고 22절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결국, 발람은 역설적으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의 사신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러자, 발

람을 보고는 무서워서 발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발람은 여호와와 사자를 보지 못하고 애꿎은 나귀만 채찍질합니다(23절). 그러자 나귀가 담 쪽으로 피하다가 발람의 발을 다치게 하자 또다시 채찍으로 나귀를 때립니다(25절). 여러분! 발람은 나귀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데만 화를 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고 있질 않

그 앞에 엎드립니다(31절).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34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자기 나귀가 생전 보여 주지도 않았던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발람은 “왜? 이런 평범하지 않은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마치 발람이 나귀에게 했듯이,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분노를 퍼붓는다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 그래서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마음대로 안될 때, 그 문제나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기 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먼저 내뱉는 경우도

성도는 비전의 사람이다. 은혜받고, 성령 충만할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변화이다. 그 변화를 주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꿈과 소망과 비전이다. 성령이 임하면, 어린 아이는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가진다고 말한다. 예언, 환상, 꿈을 한 단어로 통칭하여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모든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붙들려, 변화된 인생, 변화의 축복을 맞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먼저 주신 후에 그 열매를 주신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그가 아직 자녀가 없을 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의 비전을 받았다. 모세 역시 광야의 삶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비전을 받았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비전을 주시는 이유는 당신의 거룩한 뜻을, 당신의 뜻 안에서 이 땅에 실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 앞에 서게 된다. 비전은 사람으로 하여금, 단순히 이상이나 꿈에 그치지 않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등불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우리를 강하게 변모시킨다.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믿음과 소망,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든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주님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즐겁게 꾸준히 달려가는 것이다. 인생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친히 이루시는 비전들을 이땅의 비전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인생의 설계도

비전은 마치 건축물의 설계도와도 같다.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없듯이, 비전 없이 성공적인 삶을 건축할 수 없다. "나는 미국에서 성공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사람은, 어려운 영어를 배울 때 많은 기회를 구하고 찾듯이, 비전을 품은 사람, 인생의 설계도를 가진 사람은, 삶에서 성공을 향해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게 자신을 세워간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부수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주님의 뜻, 주님의 설계도에 맞도록 세워간다. 그리고 마침내 그 완벽한 설계도에 의해 가장 만족하고 복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무하다.

비전과 행동하는 삶

비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처음에는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비전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단 하루도, 꿈 없이 잠들지 않고, 꿈 없이 깨지 않는 인생이 된다. 처음에는 자신이 발견한 비전의 궤도를 보고 달려갔다면, 나중에는 그 비전이 자신을 깨우고, 달리게 만들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마침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의 원천이 되더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위대함이다. 보통 사람의 꿈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형편따라 사는 인생으로 전락한 채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다르다. 그가 친히 주셨으니, 그가 친히 역사하셔서 이루게 하신다. 그의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에 인생이 할 바는 그저 온전한 순종의 행동을 드리는 것이다.

날마다 새롭게 선택

아 보니, 배의 로프가 선착장에 매여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거에 매인 사람은, 밝은 미래를 만들지 못한다. 은혜의 빗줄로 덮어버리고 주의 날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손발을 움직이며 부지런한 수고를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될 것이다. 실패한 과거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기에 주저하지 않는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과거의 체험이나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끝이 좋으면 과거도 아름다운 추억의 스토리가 되지만, 과거에 매여 자신을 방임하면, 모든 것이 후회거리로 전락하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배신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가? 주님께 던져버려라.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고통스런 추억이 있는가?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툭 털어버려라.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비전을 가진 사람은 구체적인 순종의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모든 순종에 앞서서 생각과 마음을 먼저 항상 새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신앙의 사람, 비전의 사람

-주와 동행, 변화의 열매, 상 얻는 복-



하나님과 함께 진행하고, 그의 은혜로 결몬 맺기에 성도에게 주시는 꿈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하나님이 그려 주시는 '인생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비전을 위한 시련과 인내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시는 설계도이기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반전과 발전이 함께함을 본다. 그런 반전의 시간 동안에, 맞닥뜨리는 고비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허용 하시는 시련과 인내가 존재함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성경 외에 오늘날 신앙인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다. 비전을 통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화와 성장을 향해 나아간다. 그런데 변화와 성장의 변곡점마다 고난과 시련이 따름을 본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셨듯이, 우리 또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인내와 시련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 비전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동안에 허락된 시련과 인내는

백할 것이다. '주님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전

비전의 궁극적 성취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비전이라는 설계도를 가졌으면, 이제 그 설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비전을 이룬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와 동행하는 것'이다. 주님과의 동행이 왜 중요한가? 비전의 설계도를 허락하신 분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비전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시편 37:4)고 하셨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는 삶을 의미한다. 전인적인 교제와 동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그와 동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을 이룰 길은

더 나아가,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얽매이지 않는다. 잘되면 감사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잘되면 교만하고 안되면 원망한다. 결국 잘될 일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잘된 일이나 못된 일이나,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감사와 기도가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되었을 때, 실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매주 매시간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야기 해도 조금의 행동반경도 바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를 찾는다면, 과거의 핑계 같은 상처의 경험이다.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자세와 태도, 축복을 향한 은혜의 간구를 위한 마땅한 일에도 과거에 받은 상처를 앞세워, 조금도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하나님의 비전안에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경험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캄캄한 호숫가에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를 저었다고 한다. 아침 미명에 뒤돌

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단의 거짓 생각이나 불평과 원망, 게으름을 버리고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고, 부지런히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며,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에서부터 모든 부정적인 것을 제하여 버리고, 입술의 말에는 소망과 꿈이 넘치며, 바라보는 눈빛과 삶의 자세조차 완전히 새사람으로 변모해 가는 것을 본다. 걷는 걸음걸이조차 변화된 것을 본다. 예전에는 꼭 예비군 훈련나온 아저씨 같이 신발끈도 풀어지고 자세와 태도에 조금의 규모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후로는 전혀 다르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역시, 신앙의 결론은 변화다. 변화는 열매이다. 열매는 향기와 맛이 있다. 비전이 주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버림받지 않는 삶

비전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축도를 할 때 목사님들마다 축도하는 양식이 다른데 어떤 목사님은 “있을지어다”하고 어떤 목사님은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라고 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요? 교단마다 다른 것이지요? 좀더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권명옥 권사

축도

A: 좋은 질문입니다. 축도(Benediction)라는 말에는 축복과 기도라는 두가지 의미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기도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고후 13:13절의 신약의 축도는 기도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것이지만 고린도후서 13:13절은 인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축도의 성격이 복을 기원하는 기원적(optative)것이 되야 하느냐 아니면 축복을 선포(proclamation)하고 선언하는 것이냐? 이 문제는 한국 교회에서 2가지로 혼용되고 있고 축도하는 목사님들마다 제각각 서로 다릅니다. 과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제75회 총회에서 목사의 축도 있을지어다 에서 “축원합니다”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유인측 첫째는 축도도 기도도 둘째는 용어 사용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즉 나이 많은 몇몇 장로들이 젊은 목사가 “있을 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데서 발단이 되어 총회에서 축도를 “축원합니다”라고 결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입김에 의해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예장 대신은 1987년 상정된 헌의 안의 결과에 따라 “있을지어다”로 사용하고 있고 이미 말씀드린대로 예장 통합은 1989년 총회 결정한 “축원하옵나이다”를 사용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장 합동과 고신은 성경본문인 “있을지어다”를 거의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장은 1988년 총회 신조위원회에서 축도가 너무 다양하니 통일하자는 헌의가 들어와 축도 본문을 그대로 쓰되 종결 절만 “축원하옵나이다”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는 첨가하지 않습니다. 침례교는 대다수가 “축원하옵나이다”와 소수는 “있을지어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지만 고후 13:13절의 축도는 교회인 인간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아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축복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축도의 선포는 회구(Optative)도 아니고 명령(Imperative)도 아니고 직설(Indicative)입니다. 즉 확실한 사실을 말함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보면 서두 문단 인사말과 서신 끝에 종결하며 약속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로 시작하고 축복의 말로 종결을 맺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통상적으로 “있을 지어다”로 끝을 맺습니다. 몇 가지 예 들어 봅니다. 로마서의 서두인 롬 1:7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끝인 롬 16:27절에 축복의 선언이 나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지어다” 고전 16:23-24절에도 고린도전서를 끝맺으면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골1: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살전 1:1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살전 5: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위의 부분을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첫 인사부분과 마지막 종결 부분의 축복의 말이 다 선언적인 선포의 의미를 띠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여러 구절들을 종합해 볼 때 축도는 목사가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복이 교회에 있기를 비는 기원도 있으나 더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목사가 예배로 모여 집으로 흩어지는 성도들에게 복을 명하고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양팔을 높이 들고 손바닥은 회중을 향하여 아래로 들고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대신 복을 성도들에게 명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축도가 복을 기원하는 축복 기도라면 꼭 목사가 아니라도 평신도도 축도를 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는 사람은 결코 버림받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삶의 목표가 뚜렷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비전을 이루려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꿈을 품고 나아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자기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주시는 이심(히11:6)을 분명하게 알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 비하신 최선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은혜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은혜에 붙들릴 때,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힐 때, 피곤한 삶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

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본 사람들은 안다. 공부 잘 하는 아이가 왜 사흘밤낮을 잠 안자고 공부하는가? 상 받는 그 맛을 알기 때문이다. 신앙의 은혜도 마찬가지다. 신앙의 맛을 봐야 한다. 그 맛을 보고 나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 신앙생활의 맛이 무엇인가? 나의 꿈과 소망, 비전이 아니라, 더욱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묶이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고의 기쁨,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 수 있는 것,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짧고 유한한 인생의 일들 가운데, 최고의 복을 누리 는 길이 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GP 선교회)



“안면 인식”

최근에 중국에서 추방된 많은 선교사들이 말레이시아로 흘러 들어와서 이곳 화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것을 봅니다. 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중국을 떠난 것이 아쉽고 기억나고 쉽게 잊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

들의 사역지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난 것만 아니라 그동안 함께 했던 모든 현지인들과 제자들을 다 두고 떠나야 하는 것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나 그런 일을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선교사가 떠난 현지 교회와 사역

지에 그동안 키워낸 현지인 지도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성숙해가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의 교회가 손해 보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날이 오게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선명하게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들 중에 여권도 새것을 만들고 이름도 바꾸고 자신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얼마 후 다시 중국땅에 발을 들였지만, 공항에서 왔던 비행기로 돌아가는 일을 경험한 분들이 여럿 있으시죠. 예전에는 통했던 방법이지만 지금 통하지 않는 이유는 “안면 인식”이라는 컴퓨터 지능 기술이 세계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것을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제제없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안면 인식은 CCTV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가려내고 추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가 어느 곳에 갔는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컴퓨터가 읽어내고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에서 곧바로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사회에 안전을 줄 수 있는 기술이고 호의적인 기능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기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디에 자주 가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상품을 선호하는지도 알아내어 이메일이나 SNS로 광고가 날아오기도 해서 우리 삶이 날가벼워진 기분이 들 때도 있다는 불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킨다고 안전하다고 하며 통제보다는 더 나은 사회를 추구하는데 쓰인다고 좋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은 안면 인식 기술로 자국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 동일한 안면인식 기술을 잘 사용하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분명하기에 누가 어디까지 권리가 있는가를 구별하고 사용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날의 발전 속도는 컴퓨터 지식 정보 기술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진전하고 있습니다. 이곳 말레이시아도 그 속도가 미국보다 오히려 더 빠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통제가 이뤄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회”라는 말은 영어로 Opportunity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ob+portu (앞에서 + 향구)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현대적 편한 선착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배들은 항구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큰 파도가 몰려오면 그 힘에 의해

서 항구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파도가 크게 일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그런 기회가 쉽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잘 잡아야 했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은 기회의 때입니다. 새롭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에 올바른 정보가 우리를 앞서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찾아봐야 하고 좋은 정보를 내것으로 만들 때 기회는 내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널려있는 기회를 바르게 알고 적당한 때에 선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지 않도록 우리 삶에도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gypae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트럼프 보란 듯’ 中 주하이 에어쇼에 신무기 총출동

제15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주하이 에어쇼)가 12일 중국 남부 광둥성 주하이에서 개막했다.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A 등 중국의 최신 첨단무기들이 총출동했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주하이 에어쇼는 중국 최대 항공 박람회로 올해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창설 75주년을 맞아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렸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선 중국의 두 번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A가 대중들에게 처음 공개됐다. 중형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J-35A는 2017년 실전 배치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에 이어 개발됐다. J-20보다 작고 가벼워 스텔스 능력이 더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형은 미국 F-35와 흡사하지만, 단발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F-35와 달리 J-35A는 쌍발 터보 엔진을 장착했다.

J-35A가 실전 배치되면 중국은 F-22와 F-35를 실전 배치한 미국 공군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스텔스 전투기 두 종을 동시에 전력화한 국가가 된다. 기존 합제기 J-15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캐터펄트 사출이 가능한 J-15T도 처음 공개됐다. 중국은 스키점프대 발진 방식의 항모 랑오닝함과 산동함 외에 전자식 캐터펄트 방식의 푸젠함을 시험 운용중인데 J-15T는 푸젠함에 탑재 가능하다. J-15T에는 러시아 엔진을 참고해 만든 중국산 WS-10 터보팬 엔진이 장착됐다.

“중국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불리는 홍치(紅旗)-19 지대공 미사일도 에어쇼에 등장했다. 홍치-19는 8축 16륜 발사대 한대에 미사일 6발이 실린다. 정확한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정거리 1000~3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한 중거리 미사일이나 인도의 핵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셈이다. 2020년 실전 배치된 러시아의 5세대 최신 스텔스 전투기 Su-57도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Su-57은 러시아가 처음 개발한 스텔스기로 해외에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힐 “하원도 공화당 승리” ...트럼프 ‘레드웨이브’ 슈퍼파워 얻었다

미국 공화당이 점진 끝에 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향후 중간선거가 열리기 전까지 2년 동안 행정부부터 입법부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고 ‘트럼프 피즘’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1일 공화당이 하원 435석 중 최소 219석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아직 AP통신·CNN 등은 하원 승자를 선언하진 않았지만 결과가 뒤집히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은 민주당세가 강한 뉴욕주 3석을 잃었지만 펜실베이니아·미시간주 등 러스트벨

트에서 의석을 추가하며 손실을 만회했다. 네브래스카주의 돈 베이컨, 애리조나주의 후안 시스코마니 의원 등도 점진 끝에 승리했다.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52석)에서도 기존 12석 중 최소 9곳 사수에 성공했다.

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상·하원을 동시에 원 채로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상원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동의권 등을, 하원은 세입 징수 법률 입안권 등을 독점하고 있다.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은 트럼프 취임 후 100일 안에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입법 사항을 두고 몇 달씩 협의해왔다. 이들은 트럼프 1기 때부터 시행됐던 감세·일자리법(TCJA) 연장, 국경 장벽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화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를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최근 2년 간 하원에서 공화당은 다수당이었지만 당내 분쟁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의장선거 당시 당내 반대파로 인해 15차 투표까지 한 끝에 가까스로 당선됐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은 결국 9개월 만에 강경 우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불신임이 가결돼 축출됐다.

이후 하원의장에 오른 마이크 존슨도 올해 초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등 강경파의 불신임 시도에서 겨우 생존한 바 있다. 존슨은 공화당이 하원 승리 시 의장직 연임에 욕심을 드러냈지만 이를 위해선 강경파 도움을 얻어야 한다. 더힐은 “존슨이 하원의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내년 1월 3일 새 하원이 소집된 후 공화당 내 만장일치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러, 트럼프 취임 전 탈환 목표? “10~15분마다 공격”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약 5만명의 적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오늘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으로부터 전황에 대한 광범위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동부 포크로우스크와 쿠라호베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전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전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을 포함한 약 5만명의 병력을 소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매체 키이우포스트는 “일부 지역에서는 10~15분마다 러시아군의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몰아내기 위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막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쿠르스크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을 둘러싼 양국의 교전은 더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취임 후 24시간 내 종전을 공언해 온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종전 협상을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양국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

는 상황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네... 테슬라, 트럼프 당선 후 40% 폭등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그의 대선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존재감이 주목받으면서다.



1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8.96% 상승한 350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날 종가는 2022년 4월 7일(352.42달러) 이후 2년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중 한때 11.65% 상승한 358.64달러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6일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이날까지 4거래일 동안 39% 이상 폭등했다. 올해 연중 테슬라의 주가 수익률은 41%에 이른다. 시가총액은 지난 5일 약 8071억 달러(약 1131조원)에서 이날 종가 기준 1조1235억 달러(약 1574조원)로 3164억 달러(약 443조원)가량 불어났다.

미국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이 나라 증권사 웨드부시는 “트럼프의 승리가 향후 몇 년간 테슬라와 머스크의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AI) 이야기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했다. 다른 미국 증권사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65달러에서 350달러로 상향했다.

트럼프의 대선 과정에서 최소 1억3000만 달러(약 1822억원)를 쓴 것으로 알려진 머스크가 트럼프 제2기 행정부에서 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재집권 시 연방정부의 재정을 개혁할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어 머스크에게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2기 외교정책 키워드는 ‘협상과 억지력’

두 번째 임기를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 외교정책 키워드는 거래를 통한 협상과 강력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WSJ는 트럼프 당선인의 전현직 외교정책 참모들의 말을 토대로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과시해 적대국에는 공포를, 서방과 한·일 등 동맹에는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중·러·이란 등 적대국엔 억지력의 공포를 보여주면서 동맹국엔 안보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두 트랙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참모들은 적대국에 충분한 두려움을 주지 못한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에 ‘협에 의한 평화’를 가져오거나 최소한 확전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냉전시대 대탕트를 가져온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를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WSJ는 “이 같은 트럼프 진영 입장은 미국 바깥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고립주의 노선을 취할 것”이란 지금까지의 분석과는 사뭇 다르다”고 지적했다. 두 개의 전쟁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 국제 정세가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한층 위험해진 것이 그 배경이다.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WSJ에 “힘을 통한 평화, 확장 억지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며 “차기 행정부의 가장 큰 도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과 이란까지 끌어들이는 러시아, 이들에 대한 외교·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중국을 어떻게 막아내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은 “지금까지 미국은 적대국 각각에 대한 정책은 추구했지만 이들의 화학적 결합에 대비한 총체적 비전은 갖지 못했다”며 “트럼프 2기는 바로 이것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는 세계 어떤 국가 정상과도 직접 대화·거래할 수 있다”면서 “미국 정책을 위해 동맹국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바꿀 능력도 지녔다”고 평가했다.

WSJ는 트럼프가 첫 임기 때의 대중국 무역 전쟁을 재개하는 동시에 태평양에서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군비 투자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다른 트럼프 참모는 “트럼프는 모든 분쟁에 끼어들어 중재하고 해법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전 세계 평화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 그가 바라는 일(외교)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미로 DNA 검사했다가... 55년 만에 찾은 ‘진짜 동생’

55년 전 영국에서 태어난 두 아기가 서로 뒤바뀐 채 자라는 사실이 DNA 검사로 우연히 확인됐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관리하는 병원에서 출생한 아기가 바뀐 사례가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12일 영국 BBC 보도를 보면 이 사실은 웨스트미들랜즈에 사는 토니라는 남성이 2022년 가정용 키트로 DNA 검사를 하면서 밝혀졌다. 당시 영국에서는 DNA 검사로 족보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유행했다. 토니의 친구는 2021년 크리스마스에 재미삼아 DNA 검사 키트를 선물했다.

다음 해 2월 키트를 검사 기관에 보낸 토니는 며칠 뒤 결과를 확인하다 족보에 자신의 막내 여동생 이름이 다르게 적힌 것을 발견했다. ‘제시카’(가명)인 여동생 이름이 족보에는 ‘클레어’(가명)로 기재돼 있었다. 클레어(57)라는 여성은 2020년 아들에게 DNA 키트를 선물받아 검사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가족과 연고 있는 지역’이 자신의 부모가 태어난 곳과 무관하거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촌지간으로 나왔기 때문이었다.

클레어는 2년 뒤 업체로부터 “친형제가 가족 구성원으로 등록됐다”는 알람을 받았다. 그 ‘친형제’가 토니였다. 토니와 연락이 닿아 확인해본 결과 자신이 1967년 같은 병원에서 몇 시간 차이로 태어난 제시카와 뒤바뀌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병원을 감독하는 NHS 재단 측은 2022년 5월 두 가족에게 “출생 당시 기록이나 직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면서도 아기가 바뀐 책임을 인정했다. 사실이 밝혀진 뒤 토니는 80대인 어머니 조앤에게 먼저 이를 알렸다. 클레어는 며칠 뒤 조앤을 만났다. 아버지는 10년 전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조앤은 “제시카가 생물학적 딸이 아니어도 내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제시카는 여전히 내 딸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이들 가족과 병원 간에는 현재까지도 피해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BBC는 전했다.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렌제일교회)



칼빈의 경건생활 (The Piety of John Calvin)

칼빈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

- 1. 칼빈의 영적인 순례
- 2. 다윗과 동일시

칼빈은 자신이 시편 주석을 쓰면서 주께서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주신 고통을 겪으셨으니 오히려 그의 경험에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음을 고백한다. 시편에서 모을 수 있는 모든 교훈들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에 옮길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시편 기자의 의도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칼빈이 얻었던 큰 유익이다.

다윗은 시편 기자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인물이다. 칼빈은 다윗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고난을 교회 안에서 겪어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슬픔을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자신은 비록 다윗을 따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그와 동등한 자가 될 수 없지만, 다윗이 갖추고 있는 온갖 덕목들을 마치못해, 끌려가듯이 갈망하면서도, 다윗의 결점에는 아주 밀착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칼빈이 그와 공유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신이 그것들을 검토하면서 비교해보는 것으로 만족해한다. 그러므로 인내, 열정, 정직과 같은 다윗의 신앙의 증거들을 읽을 때, 칼빈은 종종 그에게 접근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슬픔과 탄식에 끌려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다윗을 통하여 자신의 소명의 출발점과 자신의 사역의 지속적인 과정을 반추하게 된 것이 매우 유익한 일임을 고백한다. 이런 반추의 과정을 통해 이 지극히 탁월한 왕이며, 선지자인 다윗이 겪어야 하고 또 참아내야 했던 모든 일들을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가 따라야 할 본보기로 그에게 주신 것임을 아주 명확하게 깨닫는다.

3. 칼빈 자신의 교육과 훈련을 인도하신 하나님

칼빈은 자신의 상태가 다윗보다 더 보잘것없고 비천했었다고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들어서 왕이 되게 하셨듯이(삼상 16:11 이하) 하나님께서는 미천하고 보잘것

없는 위치에 있던 자신을 들어 목사와 복을 설교자라는 지극히 고귀한 위치를 맡기셨다는 것이다.

칼빈의 어린 시절부터 그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신학수업을 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법학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학문임을 안 그의 아버지는 마음을 바꾸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그는 철학 공부를 보류하고 법학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법학연구에 몰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섭리의 손길을 펴셔서 마침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셨다고 말한다.

4. 칼빈의 방향전환

처음에 칼빈도 미신으로 가득 찬 가톨릭교회에 완고할 만큼 헌신해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을 말한다. 하나님은 그를 갑작스럽게 회심시키셔서 종교문제에 있어서 나이에 걸맞지 않을 만큼 완고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으며 쉽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성격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말한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의 맛과 지식을 조금 알고 난 뒤 그는 갑작스럽게 그의 경건을 향상시켜야 하겠다는 열정에 불타게 되었음을 말한다. 그렇지만 그가 다른 공부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열의가 많이 식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참된 교리를 배우려는 많은 사람들이 신출내기 지나지 않은 자신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당시의 순수한 신앙을 접하고자 원했던 오를레앙의 모든 시민들은 칼빈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학문과 열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칼빈 자신은 세련되지 못하고 비사교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갈망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은신처를 찾기 시작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는 생활을 소중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가지 변화를 주셔서 어느 한 순간도, 어느 곳에서도 조용히 있지 못하도록 몰아가셨음을 고백한다.

주님께서는 그의 천성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를 이끄셔서 그는 항상 빛에 드러나 있어야만 했다. 자신

의 조국 프랑스를 떠난 그는 독일로 향하면서 어느 알려지지 않은 시골구석에서 있으면서 히브리어 연구에 몰두 했었다. 드디어 그가 그렇게 원하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었다고 말한다.

5. 바젤에서의 체류하며 『기독교강요』를 쓰게 된 동기

칼빈 자신이 바젤에 은신하여 거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있는 동안 프랑스에서는 많은 신실하고 거룩한 신자들이 끔찍한 화형을 당했다. 그 소식이 해외로 널리 알려지자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심각한 반발을 보여 그와 같은 학정의 주인공들에 대해 증오를 품었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가득 찬 소책자들이 배포되었다. 이 책자들은 그렇게 잔인한 취급을 받은 자들은 오직 재세례파들과 선동적인 사람들만이 그런 잔인한 취급을 받았다는 변명을 늘어 놓기에 급급했다. 그들의 환상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와 잘못된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질서 전체를 전복시키려고 의도했다는 것이다.

그때 칼빈 자신이 그 책자들을 최선을 다해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신은 하나님께 게으르고 불충한 자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했을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가 『기독교강요』를 쓰게 된 동기도 여기에 있었다. 『기독교강요』의 첫 번째 목적은 주님의 면전에서 고귀한 죽음을 죽은 그의 형제들에게 가해진 사악한 비난들을 공격하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둘째, 그것과 똑같은 잔인한 행위들이 그 이후에도 많은 가련한 사람들에게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 그 실상을 알려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해 펜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 칼빈은 지금과 같은 정성들인 완전한 책의 형태로 글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칼빈 자신의 글은 다만 주요 문제들을 요약의 형태로 게재한 작은 소책자를 펴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사악하고 신실하지 못한 아첨꾼들이 포악하게 중상모략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신앙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려는 목적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younsuklee@hotmail.com

이영숙 박사의 성품치유 여행



이영숙 박사

Good Tree Mission, California Grace University
총장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마음을 움직이는 경청의 기술

경청 전문가, 당나귀의 비밀

당나귀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당나귀 귀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좋은나무성품학교 아이들과 동물원에 가서 실험해 보았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당나귀야, 당나귀야!” 하고 불렀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당나귀의 귀가 소리 나는 쪽으로 빙그르르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굉장한 일이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나귀 같은 동물을 지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경청을 생생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보면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경청의 성품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경청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경청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 집중함으로써 말하는 상대방에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태도이지요. 분주함으로 주의력이 산만한 상태에서는 어떤 귀중한 말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갈팡질팡하면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항방 없는 짐승을 걷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움직여도 결단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경청의 5가지 기술

이러한 경청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청을 잘하려면 몇 가지 태도를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쳐다보세요. 말하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것이 경청의 시작입니다. 눈을 쳐다보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며 듣는 것이 경청의 바른 태도입니다. 좋은나무성품학교에서는 24개월 이전의 아기들도 이름을 부르고 눈 맞추는 경청 연습을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다른 곳을 보던 아이들이 눈을 마주칩니다. 눈 속에 아이들의 맑은 영혼이 들여다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녀를 키우면서 하루 종일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경청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질문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은 성품의 태도입니다.

셋째, 바르게 앉고 바르게 서서 멋진 태도로 듣습니다. 경청을 가르치고 나면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반듯해집니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은 허리를 세우고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 말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다섯째, 경청 법칙을 연습해 보세요. 모든 대화에서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라고 3번 이상 말하는 것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에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구나, ~구나, ~구나”라고 세 번만 공감해 주면, 공감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경청은 사랑입니다

이렇듯 경청하면 상대방은 자신을 존중해 주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집중해 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요. 그래서 경청은 세상을 향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신을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라고 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을 하나까지 경청함으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우리의 절망과 소원에도 경청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리는 힘, 경청을 연습해야 합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우리 삶에 막힌 답을 허물고, 세상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풍성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Tel: (702) 579-7576, Fax: (702) 52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포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리고제일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성경찬도: 매주(목) 오후 4:00-7:00 Tel: (773) 802-1112, estcross@yahoo.com 6050 W. TOLUHY Ave, Chicago, IL 60646	말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다윗 The word korean Presbyterian church 42 N 1st street, Pacific Beach WA 98571 주일예배: 오전 11:00 Tel: (360) 907-7271, blessing@yahoo.com 3906 Country Club NW, Olympia, WA 98502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806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벤틀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 (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영):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목회, 영년, 종교동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6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센터빌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 (703) 581-9235, www.pcacnc.org 25454 Gum Spring Road Chemistry, VA 20152	일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 (501) 820-9049, www.jej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850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lshei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오광균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Tel: (254) 213-1200, (254) 668-3176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EM)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laconacp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아깝지 않은 삶

1975년에 뉴욕 주에서 레오 나드 맥 이라는 사람이 23세의 나이에 침대 소녀를 강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7년 반동안 수감되었고, 출소한 이

후에도 계속해서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법적 싸움을 이어 갔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여 DNA증거 분석을 하게 됨에 따라, 2023년 9월 5일, 그가 72세 되던 생일에 법원은 그의 무죄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47년

간의 억울한 범죄 혐의를 공식적으로 벗게 되었던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한 사람은 요셉이 아닐까? 그는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수감되어 있었으니 말이다. 신약성경으로 범위를 한정한다면, 가장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은 바울일 것이다. 그는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여러 번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다. 알려진 것 만으로도 그는 시철타로 별을 다섯 개나 달았다.

이렇게 간혀 있게 되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신세 한탄을 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게 된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수감 생활과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을 원망하기는커녕,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창 50:20)라고 말함으로, 원망하기를커녕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자

신의 수감 생활에 대해서 빌립 보서 1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언급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억울하게 여기거나, 생색을 내지 않는다. 좀 알아달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섬기거나, 다들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나면, 생색을 내고 싶어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하고 말씀하신다.

한인타운에 있는 굿사마리탄 병원 로비에 가면 한쪽에 병원을 위해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루는 그 병원에 갔다가 그 이름의 목록을 보았는데, 사람 이름마다 글씨의 크기가 달랐다. 기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이름을 더 크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비단 굿사마리탄 병원 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문화에서는 기부를 하면 그 기부한 것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한다. 더 큰 돈을 썼으니 그만큼 더 티가 나게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나

라이다.

그러나, 내가 섬기고 나서 남들이 몰라준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 내가 많이 희생했는데 남들이 몰라준다고 아까워하지 말자. 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갚아 주실 것이다.

wmclakim@gmail.com



미주성시화운동본부 11월 정기 모임 갖고 사업보고를 들고 앞으로의 사업계획 등을 세웠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11월 정기 모임

사무국장 이철주 목사 선임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진유철 목사)는 지난 6일(수) 오전 10시 미주 성시화운동본부 회의실에서 18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정기 모임을 갖고 사업보고와 사업계획 등을 발표했다. 최순복 권사 기도 후 송정명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제9회 설교 페스티벌에 관한 보고

와 시니어 목회를 위한 교육 세미나 협조, 엑스포로 50주년 기념행사 협조 사항 등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그동안 사무국장으로 일해 온 박인호 목사의 사임에 관한보고도 있었다. 박인호 목사의 후임으로는 이철주 목사가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어 인사를 나눴으며 김창호 목사와 윤종대 목사를 운영위원으로 추대를 결의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2024년 하이어 콜링 집회 지원 방안과 송년모임 및 2025년 총회 소집에 관한 의견도 교환됐다. 이날 송정명 대표회장은 “회원들의 헌찬 활동과 적극적인 헌신으로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됨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참가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자녀의 죄는 내 죄가 아니다

〈1면에서 계속〉

하지만 근본 원인이 무엇이든 의자를 던지면서 다른 아이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내게 그 이야기를 한 아이가 동생을 고자질하고 싶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엄마인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했고, 동생의 행동을 부끄러웠다. 다음날 아침, 아이들을 각각 교실에 데려다주었고, 사건의 당사자였던 아이의 교실에 마지막으로 갔다. 선생에게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다. 선생은 아이들 출석 체크에 여념이 없었고, 나는 잠시 뒤에 서서 기다렸다. 그때 아이들 캠프의 감독관이 다가왔다.

“어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알아요. 우리 집 큰애가 이야기하더군요.”

그녀는 나에게 자세한 내용을 말해 주었고, 선생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알려주었다. 내가 보기에 모든 조치는 적절했다. 하지만 행여 우리 애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두려웠다. 이 아이는 종종 다니던 시설에서 쫓겨나곤 했다. 하지만 훈련이 시급한 내게 당장 아이를 맡아줄 곳은 여기 말고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아이를 거부하면 더 이상 내게는 남은 카드가 없지 않은가?

“저, 저... 정말,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말이에요.”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자유함

그분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

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가웃했다. “아니, 어머니가 뭐가 미안하죠?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어머니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들 잘못입니다. 지금 나는 맥의 애가 수업 전에 서명해야 하는 행동 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서명하도록, 그거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14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얼굴이 뜨거워졌고, 부끄럽게도 울기 시작했다. 억눌렸던 댐이 터져버렸다. 여섯 자녀의 엄마로서 나는 평소에 온갖 소리를 다 듣는다. “애 좀 제대로 통제해.” “아니, 어떻게 애가 그렇게 나대도록 놔두는 거야?” “애 좀 제대로 감시하라고.” 가장 나쁜 것은 내가, 다른 부모에게 하는 은근히 공격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 메시지를 내 것으로 내면화하는 경우이다. 공공 장소에서 아이들이 말쑥을 피울 때 들려오는 이런 말들처럼 말이다. “아니, 부모가 돼서 왜 제대로 훈련을 안 시켜?” “집과 공공장소를 구분할 줄도 모르나? 이게 다 부모 탓이지.” “저 집은 예의라는 게 뭘지 가르치기는 하는 거야?” “부모가 돼서 아이들이 해달란다고 다 해줘? 거절할 건 거절해야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우리 아이의 죄의 본성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사람이 지치게 만든다. 모든 상황이 정말로 지겹다. 아마도 내 노력이 모자란 모양이다. 내가 제대로만 양육했다면, 아이들은 더 이상 죄성을 드러내지 않을 텐데 말이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날 부모를 숨 막히게 만드는 점이다.

충분하신 구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내 아이들 죄의 짐을 지고 있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종종 육체적으로도 그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루시므로, 나도 내 자녀들의 죄를 다루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사이다.

맞다. 그렇다고 내가 그들의 구주까지 될 수는 없다.

캠프에서 있었던 그날의 대화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아이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한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만큼 강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며, 그의 이름은 예수님이다. 그 주간에 아이들 캠프를 담당했던 그 다정한 여인이 나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부모들이여,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벼운 땅을 메라. 부모로서의 역할에는 징계가 포함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도 되어야 한다. 그 안에는 기도, 훈련, 교정이 포함된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종류의 “의로운 죄책감”도 짊어지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에게 옳고 그름(옳범)을 가르치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위해 행하신 일과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하는 바(복음)을 가르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무게를 짊어지셨다. 오로지 그분만이 죄의 무게를 짊어지신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가? 특히 최악의 날을 맞은 그런 날에는 말이다.

by Gretchen Ronnevik, TGC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총회 및 제 10회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12월 5일(목) 최우수상 배홍철, 우수상 신나리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사역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 바라는 취지에서 매년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임승쾌 장로)가 주최하고 있는 제 10회 신앙도서독후감 공모전 수상자가 결정됐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심사 에 오른 작품은 마음을 파르디 않을 용기(사디어스 윌리엄스, 두란노)는 5명,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최상훈, 규장)'는 4명, '어쩌다 거룩하게(나디아 불졸웨버, 윤종식 역, 바람이불어오는곳)' '일상의 유혹(손성찬, 토기장이)'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박영호, 복있는사람)' 등 총 12편이 최종심사에 올랐다.

심사위원장 백승철 목사(사모하는교회 담임, 시인. 문학평론가)는 “독후감 공모가 10회를 넘기면서 단순 독후감이 아니라 문학적 솜씨가 뛰어난 작품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번 회도 몇 작품에서 문학적 기량이 뿜 보였다. 독후감의 질 역시 평준화되기 시작해서 당선작을 뽑는데 고민이 깊었다.”고 심사평을 보내왔다. 시상식은 12월5일(목) 오전 10시 은달 이벤트홀(3160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에서 열리는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라이다.

그러나, 내가 섬기고 나서 남들이 몰라준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 내가 많이 희생했는데 남들이 몰라준다고 아까워하지 말자. 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갚아 주실 것이다.

wmclakim@gmail.com



지난해 제 9회 신앙도서 공모전 수상자들이 시상식을 마치고 한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

총회에서 갖게 되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최우수상 배홍철(영국 하펜던. UK)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최상훈, 규장) ▲ 우수상 신나리(얼바인 주교회. CA) 마음을 파르디 않을 용기(사디어스 윌리엄스, 두란노) ▲ 장려상 정유미(토렌스 제일장로교회, CA)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최상훈, 규장), 손문식(플러튼 은혜한인교회. CA), 어쩌다 거룩하게(나디아 불졸웨버, 윤종식 역, 바람이불어오는곳), 박숙현(사랑의빛선교교회) 일상의 유혹(손성찬, 토기

장이), 이지은(뉴욕 그리스도교회. NY) 마음을 파르디 않을 용기(사디어스 윌리엄스, 두란노).

이번 제10회 독후감 공모에도 광범위하게 목회자, 사모, 직분자, 평신도, 선교사들과 캘리포니아를 벗어난 지역, 외국에서 응모 했다. 한편 지난 제9회 독후감공모 수상자 임지영은 제28회 에피포드신문문학상 수상으로 시인의 길로 들어섰다.

〈이성자 기자〉

버클리온시온장로교회 홀사모와 자녀 장학금 전달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천정만 담임목사, 신태환 원로목사및 장학금 대리 수여자.)

버클리시온장로교회(담임 천정만 목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홀사모와 자녀 장학금 나눔 행사가 올해도 아름답게 이어져 홀사모 6명과 자녀 3명에게 \$21,000.00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해 이월금과 함께 올해도 셀리나스한인교회를 비롯한 10개 교회와 북가주사모회, 현대 뉴스등 단체 및 개인 김일순 외 18가정에서 \$15,265.00을

후원함으로써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장학금을 전달 받은 이들은 다음과 같다. △장인자 사모(린치버그 한인교회) 대학생 자녀 1인, 에스더 김 사모(종신교회) 자녀 1인, 정효숙 사모(임마누엘교회), 박경희 사모, 이남희 사모(한국) 자녀1인, 이인희 사모.

이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신태환 원로 목사(버클리시온장로교회)는 “귀한 일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은혜롭게 진행했다”며 모든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성자 기자〉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교협, 제51회기 취임식

뉴욕교협(회장 허연행 목사)은 11월 17일(주일) 오후 5시 프 라미스교회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 문의: 718-321-7800

뉴욕장로교회, 특별새벽부흥회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계 2:4-5)’라는 주제로 11월 18일(월)부터 23일(토) 오전 6시에 특 별새벽부흥회를 연다.
▲ 문의: 718-706-0100

퀸즈장로교회, 추수감사절예배 및 만찬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11월 28일(목) 오후 5시 추수 감사절 예배 및 만찬의 시간을 갖는다.
▲ 문의: 718-886-4040

영생장로교회, 교회창립 43주년 및 추수감사예배

영생장로교회(담임 정성환 목사)는 11월 24일(주일) 교회 창 립 43주년 및 추수감사예배를 드린다.
▲ 문의: 215-542-0288

윤세웅 박사의 제6회 ‘신학과 과학’ 세미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이해하고 전해야”



윤세웅 박사의 제6회 ‘신학과 과학’ 세미나 후 사진 촬영 했다

웨이스신학교와 뉴욕신학대 학교(TSNY 총장 윤세웅 박사)는 윤세웅 박사 외과진료 60주 년을 기념해 11월 11일(월) 오전 10시 레오나드 연회장에서 제6회 ‘신학과 과학’ 세미나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이현숙 박사(뉴 욁신학대학교 학장)의 사회로 시작한 예배에서 김홍석 목사(늘기쁜교회)가 ‘나눔으로 인한 기적 (마 14:15-17)’의 제목으 로 말씀을 선포한 뒤 방지각 목 사(뉴욕교협 경경회장)가 축도 했다.

이어 출판기념회를 통해 저 자 윤세웅 박사는 “‘창세기와 홍수심판’ ‘단편기독시집’ 출판 은 정통 보수적인 신학 신앙 노 선의 변질과 세속화에 대해 깊은 애통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이해하고 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 책 을 집필하게 됐다”며 “‘창세기 와 노아 홍수심판에 대한 성경 의 힌트를 바탕으로, 우리가 듣 고 보지 못한 창세 전과 노아 홍수 이전의 일들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며, 이 책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근간과 지표 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출간 목적을 소개했다. 한편 이 책에 대해 노기승 목사는 “신앙 적, 지식적으로 업그레이드 되 었다”고 말하며 꼭 읽기를 권했 다.

신학과 과학 세미나는 △신 학과 과학의 정의 △성경말씀 의 정확 무오설 △진화론의 의 학적 오류(100%) △노아홍수 의 의학적 설명 △인간의 육체 부활 고찰 △최후 심판과 부활 의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모든 순서는 전희수 목사(기쁨과영 광교회) 기도로 마쳤다.

60년 이상의 의료 경력을 쌓 은 의학 윤세웅 박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탁월한 업 적을 이뤘으며 미국 최고 외과 및 비뇨기과 전문의로 인정받 았고 법의학 분야에서도 두각 을 나타냈다. 또한 신학자로 뉴 욁신학대학교에서 강의하며 목 회자와 신학생들이 능력 있는 사명자들로 세워지는 일에 최 선을 다하고 있다.

〈홍현숙 기자〉



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53회기 정기총회 후 사진 촬영했다

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53회기 정기총회

신임회장 한준희 목사, 부회장 박희근 목사

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정 관호 목사) 제 53회기 정기총 회가 11월 12일(화)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정상철 목사 시 무)에서 개최됐다.

정관호 목사는 “뉴욕목사회 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사 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지 난 1년 동안 노력했다. 예상치 못한 일들 속에서도 임원진의 수고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 며, 목사회는 신앙과 삶의 본이 되어 비판이 아닌 존경의 대상 이 되기를 다짐했다. 앞으로도 성경 연구와 기도로 빛과 소금 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길 바 랐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준희 목사 사회로 시작하 1부 예배는 기도 하정민 목사, 설교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이트 교회), 헌금기도 및 축도 김 홍석 목사(직전회장) 순으로 진 행됐다.

양민석 목사는 ‘빈들의 식탁(잔치) (막 6:34-44)’이라는 제 목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 의 근본적인 동기는 불쌍히 여 기는 마음, 즉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빈들 같은 상황에 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따 따뜻한 마음이 영적이고 육적인

풍성함이 가능했다”며 “우리는 상대의 메마름을 볼 수 있는 마 음과 상대의 필요에 의해 반응 하는 분출된 긍휼한 마음을 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본받아 총회가 기쁨과 풍 성함을 만들어 나가는 모임이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뉴욕 교 계의 자랑거리가 되길 바란다” 고 설교했다.

정관호 의장의 사회로 시작 한 총회는 구자범 목사의 개회 기도과 각 업무 보고가 있는 후 임원선출을 통해 회장 한준희 목사, 부회장 박희근 목사를 선 출하고 감사는 김요셉 목사, 이 은수 목사, 하정민 목사를 선임 했다.

신임회장 한준희 목사는 “교 계의 문제를 바로 잡고 복음 전 파를 위한 하나 됨을 강조하며, 모든 행사에 복음을 중심으로 두면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후 원할 것이라 믿고 감사와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회장 박희근 목사는 “회장을 도와 열 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신임회원 양미림 목사(뉴욕살롬교회) 소개와 신안건 토의가 있는 후 박진하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더나눔하우스, 가을 단풍 야유회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는 11월 6일(수) 가을을 맞이하여 25명의 더나눔하우 스 가족이 롱아일랜드 Sunken Meadow State Park에서 가을 단풍을 만끽하며 야유회를 가 졌다.

박목사는 “소외된 이들이 위 로 받고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 의 시간을 가졌으며 무명의 후 원으로 글로벌 뷔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겁고 기쁜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다” 며 “특별히 이번 야유회는 나보 다 약한자를 돕는 아름다운 모

습들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 는 시간이었다. 회복 중에 있는 지체 장애우, 시각 장애우와 수 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서 활동에 제한이 있는 이들을 누 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손을 잡 아주어 산책을 돕고 식사에 어 려움이 없도록 섬겨주는 모습 이 아름다웠다”고 전했다.

오는 12월 8일(주일) 오후5 시 더나눔하우스는 14번째 후 원감사의밤을 KCS HALL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는 718-964-3469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더나눔하우스)

GMC(글로벌감리교회) 한미연회 동북부지방 주최 감사 찬양제

동북부 지방 11개 교회 연합하여 참여,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



11개 교회 찬양대가 연합하여 찬양제로 모였다

GMC(글로벌감리교회) 한미 연회 동북부지방이 주최하는 감사 찬양제가 11월 3일(주일) 오후 5시, 뉴저지 더바인교회 에서 열렸다. 1년전에는 연합 감리교회(UMC) 교단을 탈퇴하 고 세계감리교회(GMC)에 가입 하고 가입 감사 찬양제를 드린 바 있다. 감사 찬양제에 모인 성도들은 한 해 동안 글로벌감 리교회에 배부신 하나님의 은 혜에 깊이 감사 드리며,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감사 찬양제에는 동북 부지방 그레이스벨리교회(장학 범 목사), 남부뉴저지침음교회(박성민 목사), 뉴저지 더바인교 회(고한승 목사), 뉴욕만백성교 회(이종범 목사), 뉴저지 베다 니교회(백승민 목사), 뉴욕베델 교회(신성근 목사), 스탠포 아 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목사), 체리힐 제일교회(김일영 목사), 뉴욕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박영관 목사), 허드슨밸리한인 교회(김종권 목사), 커네티컷중 앙교회(김정환 목사) 등 11개 교회가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찬양과 예배 순서를 선보였다.

각 교회의 찬양대는 정성껏 준비한 찬양곡들을 통해 하나

님께 영광을 돌렸고, 참석한 성 도들은 찬양 가운데 성령의 충 만한 임재를 경험하였다. 특히, 지난 해 개척의 소식을 알리며 찬양제에 참석했던 남부뉴저지 믿음교회와 뉴욕하나님이일하 시는교회는 더욱 늘어난 찬양 대 인원로 동참해 큰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박영관 목사(뉴욕하나님이일 하시는교회)의 진행, 박성민 목 사(남부뉴저지침음교회)의 개 회 기도, 김정환 목사(커네티컷 중앙교회)의 설교로 이어진 찬 양제는 각 찬양대의 개성 넘치 는 무대와 은혜로운 찬양으로 참여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 다. 고한승 목사(더바인교회, 동북부지방 감리사)의 축도로 찬양제를 마무리 하였다.

동북부지방 관계자는 “이번 감사 찬양제를 통해 동북부지 방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하 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매우 기쁘 다. 앞으로도 말씀의 권위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GMC교단 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 시대 에 주신 사명에 더욱 힘쓸 것” 이라고 전했다.

〈정라: 김재상 기자〉



족구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북미원주민선교회 후원 위한 제1회 미동부지역 족구대회 개최

하은교회 종합우승, 4개 교회 50여 명 참여

뉴욕북미원주민선교회(회장 김재열 목사)가 주관하는 2024 제1회 미동부족구대회가 11월 2일(토) 뉴욕센트럴교회 체육 관에서 열렸다. 뉴욕족구클럽(회장 김우규)이 도와 북미원주 민 선교후원을 위해 열린 대회 에는 아름다운교회, 하은교회, 센트럴교회, 선한목자교회 등 50여 명의 성도들이 참가했다.

준비위원장 박준열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개회 예배에서 센트럴교회 이형근 장로가 기 도했으며, 회장 김재열 목사가 “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사편 133:1-3)”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 재봉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 치고 경기에 들어갔다.

경기결과 하은교회가 종합우 승, 아름다운교회가 우승, 뉴욕 센트럴교회가 준우승을 했다. 수상팀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이 전달됐으며, 각팀당 족구공 1 개와 스포츠 양말 등 다채로운 상품들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의 기쁨을 더했다.

준비위원장 박준열 목사는 원주민선교에 대해 소개하며 “

뉴욕교계의 자랑 중 하나가 교 회연합 북미원주민선교회다. 20여 년 동안 한인교회 1백 명 이 넘는 성도들이 연합하여 원 주민선교를 해왔으며 2014년 에는 뉴욕북미원주민선교회를 발족하고 더욱 사역을 전문화 했다”고 전했다.

북미원주민선교회 2025년 선교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 까지 메인주, 위스콘신주 등에 서 열린다. 선교를 위한 선교훈 려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 지 매 주일 오후 4시 뉴욕선한 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 서 열린다. 어린이, 장년, 가족 등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의 전통놀이와 음식, 네일, 의료, VBS 등을 내용 으로 진행된다.

홈페이지(nynama.net)를 통 해 원주민선교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문의는 박준열 목사(917-514-0369) 나 박준영 목사(917-254-6159)에게 하면 된다.

〈정라: 김재상 기자〉

피종진 목사 12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역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제 234차 해외성회 (234th Overseas Assembly)
12월1(금) 미국(U.S.A) LA 희망찬교회(준비위원장 백지영 목사, 평통 미주 상임고문)
2(토) 미국(U.S.A) LA Vision Church
3(주) 미국(U.S.A) LA Sams Community Church(Pastor,Sams)
3(주) 미국(U.S.A) LA 은혜선교회
4(월)~5(화) 미국(U.S.A) Las Vegas 뉴푸른교회(노은철 목사)
6(수) 미국(U.S.A) Las Vegas 중앙장로교회(임인철 목사)
7(목) 미국(U.S.A) Las Vegas - LA -> KOREA
8(금) 한국(KOREA) 17시30분 도착

9(토) 정오
10(주) 저녁
11(월) 오전
11(월) 오후
11(월)~12(화)
13(수) 오전
13(수) 저녁
14(목) 오전
14(목) 오후
14(목) 오후

남서중양교회(Elders year-End) Gathering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연세대학교 목회자문도 송년의 날 주관 : 연세동문목회자부흥협의회
(대표회장 박형준 목사, 사무총장 이강봉 목사) 장소 : 연세대 백양누리
부천예림교회 주최 : 느헤미야부흥사회(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전주 셋별교회(원정 박순자, 원목 최종만 목사) 010-3678-5942
남양주 뉴푸른진전교회(이석우목사) 010-2250-4690
서울대학교 ABK 총동창회(중앙교수회관 컨벤션센터2층 무궁화홀) Benediction
국제신학교(학장 김영준목사) 010-9260-1091
고양시 촉목교회(김정호 목사) 010-6374-4855
한미부흥감사단(KURS)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Special Concert 장소 : 가평공연장 010-2238-3999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Meeting Ceremony (준비위원장 Jasom Paik) 010-2238-4592
Business Blessing Event
World Gospel Mission Association
서울 강남반석교회(정지훈 목사) 010-8331-3431

15(금) 오후
16(토) 오전
16(토) 오후
17(주) 저녁

필리핀(Philippines) Calamansi Bethel 찬양교회(하용철 선교사)
필리핀(Philippines) Calamansi 지역 원주민전도성회 (준비위원장 하용철선교사) 귀국

22(금)~23(토)
24(주) 오후
25(월)
26(화) 오후
27(수) 오전
28(목) 오전
29(목) 저녁
31(주) 자정

천안 위대한약속교회(윤재민 목사) 010-6352-0691
김포 감리교회(조경숙 목사) 010-8222-1992
성탄절 Important Charity
서울 강남순종교회(오승준 목사) 010-9667-5321
귀리 성민중앙교회(김영준 목사) 010-9260-1091 주최 : World/독종총연합회(이시정 정진희 목사)
웃음힐링선교회(총재 이운을 목사) 010-8947-2011
서울 강남반석교회(정지훈 목사) 010-8331-3431
남서중양교회(원로 피종진 목사, 담임 여친근 목사) 02-3411-9191 송구영신축복대안수기기도성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www.nasca.or.kr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두나미스소피아 대학교 일일 공개 세미나에서 김정원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두나미스소피아 대학교 일일 공개 세미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겼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뤄”

두나미스소피아 대학교(총장 다니엘 리 박사)는 지난 5일(화) 오전 10시 ‘성경적 제자의 도’라는 주제의 일일 공개 세미나를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개최하고 박성근 박사, 이순정 박사, 김정원 박사, 이윤호 박사가 강사로 나서 열린 강의를 인도했다.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는 김정원 박사가 ‘성경적 제자의 도’라는 주제로 첫 강의를 인도했다. 김 박사는 “마 28:18-20은 지상대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Go therefore, Make Disciple, Baptizing them, Teaching and observing what Jesus taught them은 모두 동사로 이루어져있다”며 “예수님의 제자는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먼저가고 제자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킴으로써 하는 것이 대사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경에서 제자는 269번, 크리스천은 3번 언급되었다. 제자는 간절함을 가지고 배우기를 원하는 자, 스승을 잘 따르는 자,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자이며 제자는 훈련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자들을 훈련하셨는지 예수님은 3가지 중요한 영역은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우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예수님께서 는 하나님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를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사역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며 하나님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보여주셨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할 제자들을 훈련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박성근 박사가 ‘제자훈련과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박성근 박사는 “한국교회가 1990년대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하지만 환경 때문에 교회가 기우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환경으로만 보면 초대교회가 더 심했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교회가 성장하기위해 화려한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교회가 회복된다. 교회사역의 본질은 세상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이다. 목적은 하나님나라를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겼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게 되었다.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만들어 낸다면 물이 바다됐을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진짜 예수의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긴다면 한국을 뒤집을 수 있게 된다. 사역하는것은 우리의 직무이다. 내가 부흥을 이루어나간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동참할 뿐”이라 말했다. 이윤호 박사(두나미스소피아 대학교 대학원장, 두나미스 영성치유상담연구원 원장)가 ‘능력 제자삼기: 지역교회에서의 치유사역 정착 방안’이란 주제로 강의했으며 이순정 박사가 ‘제자훈련에 대한 성경신학적 평가’를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OC장로협 창립 10주년 감사 축하연이 세리토스 포퍼밍 아트센터 내 시에라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OC장로협 창립 10주년 감사 축하연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회장 배기호 장로) 창립 10주년 감사 축하연이 10일(주일) 오후 4시30분 세리토스포퍼밍아트센터 내 시에라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배기호 장로는 “OC장로협의회는 창립 이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많은 사역을 해왔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며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된다”고 말했다. 배 장로는 “장로협의회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참석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창섭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1부 감사예배는 배기호 장로가 기도했으며 소프라노 이영주가 특송했으며 한기홍 목사가(해한이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

당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함께한 10년, 함께 할 10년’이라는 제목의 특별영상을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가 축도했다. 김중대 장로(행사총괄위원장) 사회로 열린 2부 축하연은 아리랑합창단(지휘 김정민), 바리톤 장상근, 소프라노 이영주와 가수 패티김이 축하를 불렀으며 김영수 장로가 환영사, 김종규 목사(OC제일장로교회)가 기도, 이영선 사장(미주복음방송)과 전달훈 장로가 축사했다. 이어 현악 4중주, 김창달 장로의 피아노 독주가 있었다. 이날 축하연은 남성수 목사(OC한인교회)가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인도한 뒤 조현영 목사(큰빛갈리교회)가 이날 참석한 모든 이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한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OKC창립 48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에서 임직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있다

오렌지한인교회 창립 48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

“계속 개혁하는 교회, 소망이 생명수처럼 솟아나는 교회”

오렌지한인교회(OKC 담임 정유성 목사)는 창립 48주년을 맞아 10일(주일) 오후 2시 창립 감사예배와 함께 김영곤 장정호 장로, 박세훈, 박주용, 최상훈 안수집사의 임직식을 가졌다.

정유성 목사 인도로 시작된 1부 감사예배는 김두환 장로 기도, 연합찬양대 찬양으로 이어졌다. 이날 남성수 목사(OC한인교회 담임)가 ‘소망이 샘솟는 교회(행 6: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남성수 목사는 “임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OKC는 소망이 샘솟는 교회이다. CRC의 의미는 개혁된 교회가 아닌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이며 앞으로로도 소망이 생명수처럼 솟아나는 교회이다. OKC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 목사는 “예루살렘교회는 신약교회의 모태이며 모델이 되는 교회였다.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 이상한 기준과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했다. 여기에 모든 사도들이 복음의 역사로 달려가는 교회로 회복시켜 나갔다. 그러자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이 시작됐다. 교회갈등의 3박자는 섭섭함 원망 비난이다. 그것의 해결방법은 첫째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소망이 있는 교회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교회이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모든 기준이 교회의 본질로 가야 한다. 교회의 근본적 원리를 붙들고 몸된 교회를 섬기기 바란다. 세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다. OKC가 제2의 예루살렘교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인 사역을 감당하여 지역사회 생명의 근원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우지원, 김현준, 한선우, 다니엘 문 등 중고등부 학생들과 리디아 고, 엘리사 박 등 청년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뒤, 정유성 목사 집례로 시작된 2부 임직식은 사약, 안수기도, 공포, 임직패 수여로 이어졌다. 이날 임직받은 김영곤 장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 하듯 섬기며 OKC 공동체가 믿음의 소망품고 동역자로서 예수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고 함께 성장하도록 주님이 주신 직분 받으며 충성된 종으로 삶을 드리겠다”고 말했으며 장정호 장로는 “OKC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스캇 엘리스 목사(The River CRC)가 임직자에게 권면했으며 크리스 최 목사가 본교회 교우들에게 권면했다. 이날 임직식은 정유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뮤지컬 도산 시즌4를 마치고 출연자들이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뮤지컬 도산 시즌4 열려

깊은 감동과 애국심 자아낸 최고의 작품

무대예술인 그룹 극단 시선(대표 클라라 신)이 주최한 ‘뮤지컬 도산 시즌4’가 9일(토)과 10일(주일) 오후 3시30분과 오후 7시30분 월세이벨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도산 안창호 역을 맡은 테너 최원현 씨는 “도산 시즌4를 공연하면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서 감사하다”며 “도산 선생님의 정신이 뮤지컬을 함께 준비하고 공연한 출연자들과 스태프, 그리고 관객들의 마음에 남아서 하나가 되어 더 나은 대한민국과 한인 커뮤니티에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블케스트로 도산 안창호 역을 맡았던 백인태 씨는 “뮤지컬 도산 시즌 4 총연출을 맡은 추정화 감독께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도산 선생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연기할 때 대사를 하나 할때에도 동작을 하나 할때에도 허투로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공연을 할 수 있었다”며 “미국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지만 저의 마음은 뮤지컬 도산 시즌4를 했던 그 시간에 머물러 있을거 같다”고 말했다.

도산 안창호가 생의 마지막 독립된 한국을 생각하면서 막이 올린 뮤지컬 도산은 그야말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시절 대한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조들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재현해 냈다. 지난 시즌들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무대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는 보는 내내 감동으로 다가오기에 충분했으며 공연이 마친 뒤 관객들 역시 최고의 공연을 관람했다는 반응이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35주년 기념 학생음악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개교 35주년 기념 음악회가 15일(금) 오후 7시30분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소리의 향연(A Celebration of Sound)”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개교 35주년 기념 음악회는 그동안 본교 음악과가 매 학기 펼쳐진 학생음악회(Student Music Festival) 연주회를 축하행사와 겹치게 된 것으로, 이 학생연주회가 이번 에 30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연주회 입장료는 무료.
▲ 문의: (213)388-1000

미디어의 영적분별 세미나
33년간 SBS에서 PD로 근무한 이상호 회장(예능인방송인선교회/예방선)이 세미나 강사로 초청되어 오는 13일부터 미국의 교회에서 ‘미디어의 영적 분별’을 주제로 강의한다. SBS 장수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의 프로듀서로 활동한 이상호 회장은 세계 열망을 품으며 지난 25년 동안 국내외 복음사역에 헌신해왔다. 이번 집회는 오는 13일 저녁 8시(현지 시간) 미국 토론토 조은교회(김우준 목사) 수요예배를 시작으로, 15일 저녁 7시 30분 LA 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 16일 오전 10시 30분 미주양곡교회(지용덕 목사)에서 열린다. 이어 17일에는 샌퍼난도 밸리 예수동행교회(안정섭 목사)에서 오전 8시와 11시 예배에서 각각 설교할 예정이다
▲ 문의: (949)864-9162

제29회 남가주 장로 성가단 연주회
남가주 장로 성가단(단장 한정환)은 17일(주일) 오후 5시 파사데나 장로교회(담임 최진영 목사)에서 제29회 정기 연주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에는 장로성가단과 함께 지휘자 장진영, 반주자 윤경미, 소프라노 이영주, 플루티스트 최혜성이 출연한다.
▲ 문의: (213)700-0053

들로스선교교회 이병호 담임목사 취임예배
들로스선교교회(3119 W 6th St. LA)는 이병호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17일(주일) 오후 4시에 거행한다.
▲ 문의: (213)703-2529

새생명비전교회 창립 15주년 감사 주일예배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는 창립 15주년 감사 주일예배를 17일(주일) 예배시간(오전 7시30분, 9시20분, 11시30분, 오후 2시)에 갖는다.
▲ 문의: (323)373-0110



제2회 주사랑 나눔 여성 선교 합창단 연주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주사랑 나눔 여성 선교 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주사랑 나눔 여성 선교 합창단(단장: 강태광 목사) 제2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2일(토) 오후 6시30분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이수호 목사(울림픽장로교회)의 기도로 시작된 음악회는 ‘영원한 노래’, ‘은혜 알게 하소서’, ‘존귀한 주’, ‘우리 왕’ 등을 불렀다. OPC Youth Ensemble, 하나와이어(지휘 문혜원)가 출연하여 이날 연주회를 빛내주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재미기독여성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제17회 재미기독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재미기독여성합창단(단장 목경순, 지휘 조한우) 제17회 정기연주회가 10일(주일) 오후 4시30분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개최됐다. 목경순 단장은 “지난 38년 동안 저희 합창단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오늘 연주회에 오신 많은 분들이 연주회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웅 목사(갈보리믿음교회) 기도로 시작된 정기연주는 ‘참 좋으신 주님, 내 감사하게 살리라, 주의은혜,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등 성가곡과 ‘보리밭’, ‘꽃구름 속에’ 등 가곡을 불렀다. 또한 가야금 트리오(가야금 이정화, 첼로 박수정, 재즈피아노 이선행)가 찬조 출연해 이날 연주회를 빛내주었다. 이날 연주회는 강진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KWMA가 그린 한국교회 선교의 미래

한국교회 선교방향성 ‘New Target 2030’ 제시

한국교회가 2030년을 목표로 선교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12일부터 이틀간 부산 해운대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New Wave Next Mission(뉴 웨이브 넥스트 미션)’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국내외 선교 전문가들과 KWMA 선교사들이 ‘New Target 2030’을 목표로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 비전을 논의했다. 이들은 12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비서구권 선교, 이주민 선교, 다음세대 선교, 디지털 선교 등 4가지 주요 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포럼의 주요 화두는 ‘세계기독교 시대의 다중신 선교’였다. 박형진 햇빛트리니티신학대 선교학 교수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3분의 2가 비서구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남반구(

글로벌 사우스) 선교가 중요하다”며 “자립·자치·자전 원칙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과 ‘함께’라는 가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대원 대구동신교회 목사는 “웹 3.0 시대의 정보 분산화된 상황에서 현대 교회의 본질은 다중심적 선교에 있다”며 “특정 국가나 집단이 선교를 독점할 수 없다는 ‘케이프타운 서약’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보경 장로회신학대 신학과 교수는 “한국 교회가 글로벌 사우스 교회와 신학 교류를 강화하고 한국적 선교학을 형성하고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신학교육현장에서 진행했던 선교인재양성 사례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 신진 학자들이 국제 학술대회에서 연구를 발표하고, 한국교회의 ‘마음 목회’ 사례를 담은 단행본 출판 등의 성과를 통해 세계 기

독교와 교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승호 KWMA 정책위원은 한국 내 260만 이주민을 위한 ‘앞마당 선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성도들이 이주민 선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WMA 디지털선교실행위원회 코디네이터인 박열방 선교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술 혁신이 선교에 중요한 도구가 되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디지털 격차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디지털 시대의 기술을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를 선교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WMA 협동총무 정용구 선교사는 한국 및 글로벌 사우스와 세계 선교 현장에서의 디지털 선교 실행을 목표로 ‘디지털 선교 로드맵 및 Action Plan’을 발표했다. 그는 ▲선교 교육 및 훈련의 디지털화 ▲번역 및 홀로그램 기술을 통한 언어 제공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와 디지털 멤버케어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디지털 전략을 통해 선교의 접근성을 높이고, 선교사와의 행정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을 설명했다. 디지털 사역을 통해 이슬람 국가 등 비공개 국가에서의 선교 사례를 소개하며 “SNS 기반 선교 참여와 디지털 인력 양성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고, 교회 행정 의결 기관인 제직회는 분기마다 교인에게 결산 내용을 공유한다. 교인들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목회자 사례비는 전교인에게 공개된다. 이날 세미나 발표자들은 교회의 투명한 재정 운용 방식에 공감하면서도 “주객이 전도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어디까지나 교회의 재정 공유는 감시 장치가 아닌 ‘교회다움’에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었다.

성석환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투명하게 관리되지만 재정 대부분이 교회 내부 오락이나 인건비로만 충당되고 있다면 규칙이 본래 취지를 상실한 것”이라며 “공동체를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출 우선순위를 두는 게 투명한 재정 관리의 목적이다. 교회 재정은 공동체를 회복하고 약자를 세우고 이웃을 초청하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 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위생복 작을을 강조하거나 주방을 유리방으로 만들진 않는다”면서도 “비위생적인 시설로 문제가 됐던 업체는 이렇게 해야 한다. 사회로부터 재정에 대한 신뢰를 잃은 한국교회 역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재정을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높은뜻하늘교회는 매주 주보에 지난주 헌금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교인들은 정관에 따라 예산위원회에 참여하

합니다.”

12일 서울 중구 열매나눔재단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세미나에서 한용 높은뜻하늘교회 목사는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 방안으로 만석담강정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모든 요식업체가 위생복 착용을 강조하거나 주방을 유리방으로 만들진 않는다”면서도 “비위생적인 시설로 문제가 됐던 업체는 이렇게 해야 한다. 사회로부터 재정에 대한 신뢰를 잃은 한국교회 역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재정을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높은뜻하늘교회는 매주 주보에 지난주 헌금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교인들은 정관에 따라 예산위원회에 참여하

밀바닥 신뢰 회복하려면... “교회도 닭장정 가게처럼”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회재정세미나

“속초의 명물, 만석담강정이 위생 문제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는 내용이 전파를 타면서 한때 매출은 반 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석담강정은 이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국 교회가 새길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가게 직원들은 반도체 회사처럼 위생복을 입었습니다. 조리시설은 바깥에서도 보이도록 유리로 교체했습니다. 손님들은 ‘반도체 공장처럼 위생을 잘 지키는 업체가 됐다’며 ‘만석반도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반년 만에 만석담강정은 이전 매출을 회복했다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한서 남궁역 기념관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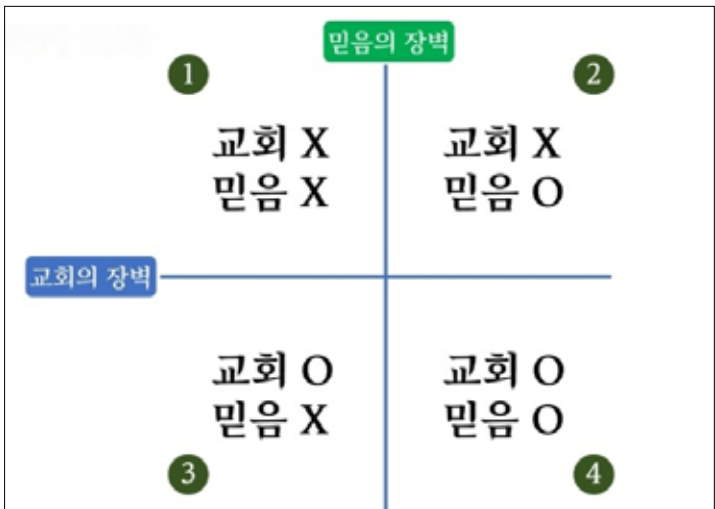
영성기도회 열며 나라 사랑 다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종락)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나라 사랑의 정신이 담겨있는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은 한서 남궁역(1863-1939) 선생이 작사했다. 신앙과 애국을 겸비한 기독교 독립운동가인 선생은 1915년 서울 종교교회(전창희 목사)에서 지금의 장로인 본처전도사 직분을 받는다. 평생 ‘샤론의 꽃’인 무궁화를 사랑하고 일제 강점기 이를 널리 보급한 선생의 자취를 찾아 종교교회 전창희 목사와 성도들이 12일 강원도 홍천 한서교회(백광희 목사)와 한서남궁역기념관

을 찾았다.

종교교회는 이날 한서교회에서 전교인 영성기도회를 열었다. 기독교 역사탐방, 화요일마다 여는 구국 기도회, 이번 주 지속하는 수능 기도회를 겸한 자리였다. 부채꼴 모양의 한서교회 예배당 중앙엔 창을 통해 자연광이 쏟아져 십자가를 비추고 있었다. 영성기도회에선 사시기 1장 말씀을 바탕으로 설교가 이어졌고 성도들은 남궁역 선생의 신앙과 애국을 떠올리며 수능을 앞둔 다음세대 모두가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구했다. 전창희 목사는 축도를 통해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남궁역 장로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우리교회 ‘건강한 소그룹’ 만드는 비결 5가지

소그룹 전문가가 말한 건강한 소그룹 만들기 길잡이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한소연·대표 이상화 목사)이 건강한 소그룹 만들기 위한 길잡이를 제시했다. 12일 서울 마포구 서현교회(이상화 목사)에서 열린 ‘소그룹 목회 준비 세미나’는 소그룹 목회를 준비하는 현장 사역자들에게 실용적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일 출간된 ‘목회트렌드 2025’는 내년도 목회에 중요한 핵심어 중 하나로 ‘소그룹’을 꼽았다. 지난해 목회데이터이엔 구소(대표 지용근)가 발표한 설문조사도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작은 모임이 활성화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활동이 교인들의 신앙적 은혜,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상화 목사는 “대그룹인 교회에서 온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한 교제, 나눔 등이 소그룹을 통해 보완된다”며 “영적 공동체의 소그룹 안에서는 문제에 대한 위로와 공감을 넘

어 한 팀으로서의 섬김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소그룹이 주는 유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건강한 소그룹’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 목사는 “서로가 모두의 이름을 알고, 목적을 잃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임”이라고 정의했다. 이 목사가 이날 전한 건강한 소그룹 만들기 비결은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소그룹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①리더 세우기 ②소그룹 재편성 ③교제 선정이 있다면 실행 단계에서는 ④질문과 경청 ⑤친밀함과 열린 자세가 그것이다.

준비단계의 첫 번째는 좋은 지도자 세우기다. 이 목사는 “약속의 신실함을 가진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며 “리더를 세운 뒤에는 이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자를 세운 이후에는 소그룹 (

인물들로 세워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고종 황제의 영어통역관이었던 선생은 독립신문 영문판 편집장을 거쳐 황성신문 사장으로 활동한 관료 출신 언론인이었다. 일본의 한반도 분할 음모를 보도해 감옥에 갇히는 등 평생 여섯 번의 옥고를 치르는 중에서도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을 거부했다. 홍천 모곡리에 낙향해서는 사재를 털어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한편 무궁화 묘목을 전국에 보급했다. 매일 새벽 성경을 한 장 읽은 후에 다른 책을 읽기 시작했고, 교회 인근 봉우리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무궁화의 영어식 표현인 ‘샤론의 장미(Rose of Sharon)’를 사랑한 그는 ‘샤론의 꽃’ 예수 정신을 끝까지 실천했다.

한서선교회 김학준 종교교회 장로는 “남궁역 장로의 일대기를 만화로 그려 다음세대에 알리는 책을 펴냈고, 수익금으로 북방 선교에 활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17년 총회 결의를 통해 매년 4월 첫 주일을 무궁화 주일로 정해 지키고 있다. 남궁역 선생은 “내가 죽거든 무덤을 만들지 말고 과목 밑에 묻어 거름이나 되게 하라”고 유언을 남겼다. 선생의 기일은 4월 5일, 대한민국은 이날을 식목일로 지키고 있다.

재)편성이 요구된다. 이 목사는 “소그룹을 구성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구성돼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민음의 장벽과 교회의 장벽을 기준으로 성도는 크게 네 분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교회가 교회, 민음의 장벽을 모두 넘은 4번이나 3번 교인들을 대상으로 소그룹을 쪼갬”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대상이 1번과 2번 교인들이다. 목회자는 이들을 어떻게 소그룹 모임에 넣고 참석시킬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말했다.

모임의 교제 선정은 나이별, 상황별 등 특성화해 소그룹을 꾸렸을 때 명확해진다. 이 목사는 “교회가 소그룹에 편입될수록 교과과정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모임이 도달하려는 영적 목표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소그룹의 제자훈련 방향성이 분명하면 교회와 민음 장벽 밖 1번과 2번 교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용이하다”고 했다.

건강한 소그룹을 준비한 이후 역동적인 소그룹으로 만들기 위한 ‘10가지 기술’도 제시됐다. 이 목사가 제시한 원칙은 질문과 경청, 친밀함과 열린 자세의 두 가지로 정리된다. 그는 “좋은 질문을 준비하고 유익을 기억하라”며 “질문을 했다면 경청해야 한다. 온전한 소통은 언어(7%)와 더불어 행동(38%), 표정(55%)의 조합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성원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 모든 구성원들이 친교를 경험하도록 인도해야 한다”며 “격려와 기도를 통해 공동체가 유기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라”고 주문했다.

“피임 중심의 성교육, 학생들의 성적 일탈 부추겨”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과 생명’ 주제로 콜로키움 개최

현재 공교육에서 이뤄지는 성가·피임 중심의 성교육이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성적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두엽 발달이 더딘 청소년 시기에 왜곡된 성교육은 절제 및 인내할 수 있는 기능을 파괴해 인격적인 성 윤리를 함양하는 데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남궁래운(사진) 넥스트클럽 사회협동조합 사무총장은 성산

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가 최근 서울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성(性)과 생명’을 주제로 개최한 콜로키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궁 사무총장이 몸담은 넥스트클럽은 성품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단계로 청소년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서울 등 전국적으로 진행하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출 수 있도록 펼치고 있다.

강사로 나선 남궁 사무총장은 학교뿐 아니라 대부분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이뤄지는 피임, 성감대 찾기, 정액 체험 등의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문화가 아닌 성 일탈을 부추기고 왜곡된 성인식을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성품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는 “성은 사랑의 선물로 찾아온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모든 과정까지 포함한다”며 “이것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 결국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성품이다. 호기심 위주의 성기 교육이 아닌 생명을 가르치는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

고 했다. 성품 성교육에서 ‘건강한 가족’도 역설했다. 남궁씨가 강조한 가정은 건강해야, 일탈했던 자녀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결국 건강한 나라로 지켜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고 2019년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나온 현상을 보며 성 윤리가 무너지면 결국 태아를 죽이는 생명윤리도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신의 가치는 생명입니다’라는 구호로 ‘생명 사랑 생명 지킴이 캠페인’을 펼치는 경험도 나누며 생명인 지 감수성 회복을 위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서 “아이들은 생명을 강조하는 성교육을 통해 인격적인 성과 사랑으로 이뤄낸 가정이 건강해야, 일탈했던 자녀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결국 건강한 나라로 지켜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연구소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서울역 인근 스페이스쉐어에서 ‘현대과학 기술과 생명윤

리’를 주제로 창립 27주년 기념세미나를 연다. 류현모(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강경선(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각각 ‘유전자 치료 승인, 무엇이 문제인가’ ‘첨단 재생 의료 바이오와 생명윤리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감사의 달을 맞아 지난 사역을 돌아보며……

이인승 목사

(휴스턴 새 믿음장로교회)



1) 미국 이민과 수술 그리고 교회 개척

부족한 종이 아내와 함께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들어왔던 때가 바로 1995년 1월이었다. 1월에 휴스턴에 들어왔다가 아파트를 하나 얻어 놓고 아내를 남겨 두고서, 필자는 3월에 다시 한국에 나가서 노랑진에서 11년 동안 목회하던 교회의 사임 절차를 다 마치고 다시 휴스턴으로 들어왔고, 10월 말경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휴스턴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 후로 1995년부터 1999년 6월까지의 휴스턴 총현장로교회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필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양쪽 고관절 수술과 왼쪽 무릎 수술을 마치고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인 1999년 7월에 어스틴 총현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필자가 일년 동안 두 아들들을 데리고 어스틴에서 목회 사역을 했는데 아내는 휴스턴에서 우체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어스틴으로 옮기기를 위해서 발령 신청을 하였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는 고민 고민하다가 목회하던 교회를 후임자에게 물려 주고서 두 아

들들과 함께 다시 휴스턴으로 2000년 7월 말경 이사를 오게 되었다. 필자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안정이 되니 그때부터

다시 이사를 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8월과 9월 사이에 필자의 아파트 부근에 있는

바로 필자가 교회를 렌트하게 된 St. Thomas Presbyterian Church였다. 그 교회의 중진들로부터 꽤히 승락을 받아서 새믿음장로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 바로 2000년 10월 1일 주일의 일이었다.

2) 10년 동안 세인트 토마스 장로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려옴

14100 Memorial Drive에 있는 St. Thomas Presbyterian Church(PCUSA)에서 약 10년 동안 주일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 교회의 본당에서 오전 11시에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렸었고, 그 교회의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 우리는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도 매 주일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로 학생들 중심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간절히 10년 동안 기도하였더니,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10년 만에 필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3) 14년 동안 예배당이 있는 건물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새믿음장로교회와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던 광명교회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광명교회 후배 목사는 우리 새믿음장로교회의 부목사가 되고, 필자가 담임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 교회당도 우리 새믿음장로교회가 인수를 받게 되었다. 그때가 2010년 9월 첫 주일의 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은행에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 매일 약 1,500불 정도를 지불 해 오면서, 오전 8시 30분에 주일 제1부 예배를 드렸었고, 오전 11시에는 주일 제2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렇게 하다가 7년의 세월이 지난 후인 2017년 11월에 은행에 빚이 약 6만여 불이 남아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 건축현금으로 5만 불을 헌금 하게 되므로 교회 재정에서 1만 불을 보태서 은행에 있던 모든 빚을 다 청산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14년 동안 예배당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왔고, 11월 10일 “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고 “이인승 목사 원로목사 추대식”과

“김현진 목사 제2대 담임목사 취임식”, “이인승 목사 성역 50주년 기념 출판 감사행사”를 가졌다. 지난 24년 동안 열심히 달려 온 교회로서 작은 교회이지마는 필리핀 선교에 힘쓰고 계신 강 선교사님 가정과 파키스탄 선교를 하고 계신 유 선교사님 가정, 중국 선교와 일본 선교에 힘쓰고 있는 필자의 동생인 이 선교사의 가정을 후원해 오고 있으며, 또한 새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양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4) 부족한 종이 나이가 70이 되어서 은퇴를 하고, 젊은 종에게 교회를 물려 주기로 결정함

필자의 후임으로 지난 2011년도 1월에 월넛크릭하나교회를 개척하여서 2014년 6월까지 약 14년 동안 담임목사로 시무하던 PCA 서복노회 소속 김현진 목사님이 사역하게 되시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필자가 나이 70이 되어서 이제 신실한 젊은 후임 목사에게 우리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물려 주고, 필자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위해서 자유롭게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한다. 바울이 마지막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딤후 4:7-8)라고 진지하게 고백한 것처럼, 필자도 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아멘, 할렐루야!!!
inseunglee1954@gmail.com



은퇴식과 출판기념회를 마친 이인승 목사 부부(앞줄 중앙)와 담임목사로 취임한 김현진 목사(이 목사 사모 뒤)가 내빈들과 함께 기념촬영

두 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한 대학원까지 공부를 마친 후에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다. 필자는 휴스턴으로

10 개의 미국교회에 교회를 렌트해 달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그 열 통의 편지 중에 아홉 통 모두는 다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고, 유일하게 한 통의 편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써서 돌아왔다. 그 교회가

오후 1시 30분에 주일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게 되었다. 무료로 본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수요저녁예배와 토요새벽기도회는 작은 교실에서 모임을 가져 오면서 필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C.S. 루이스

강태광 목사

(월드세어USA대표)



기독교 후기 시대와 C.S. 루이스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는 사실이다. 건축학에서 시작된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학, 철학을 넘어 현대인의 생활 전반에 영향력을 끼친다. 신국원 박사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오늘날 문화 전체의 성격을 규정짓는 지시어가 되었다’라고 주장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물결에 신학과 목회의 영역에도 넘실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엘롤 헬스(Erroll Hulse)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 상대주의(Relativism), 다원주의(Pluralism), 실존주의(Existentialism) 등 네 가지 사상으로 정리했다. 이 네 사상의 공통점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엘롤 헬스(Erroll Hulse)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저서의 부제를 ‘성경적 기독교를 공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 표기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기독교 복음에 미치는 악영향을 보여주는 정확한 표현이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스탠리

그랜츠 박사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거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절대적 진리를 전하는 것은 큰 도전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신학과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이유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기독교 후기 시대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신학자 스테판 파스(Stefan Pass)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기독교 후기 시대(Post Christianity or Post Christendom)와 동의어라고 주장한다. 현대를 설명하는 세 단어(Post modernism, Post Christianity, Post Christendom)는 기원과 의미가 다르지만, 현재 기독교가 직면한 어려움을 설명할 때는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복음증거가 위협받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효과적인 전도자 C.S. 루이스를 생각한다. C.S. 루이스는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절대적 진리인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한 유능한 전도자다.

CS 루이스의 전기를 쓴 신학자 알리스트 맥그래스 박사

는 C.S. 루이스가 활동했던 20세기 후반의 영국 사회는 종교가 지적 사회의 견인력을 상실한 시대였고, 세속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시대였다고 주



장한다. C.S. 루이스의 기독교 변증학 서적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고 복음 전도에 활용되었던 1960년대 영국의 지식인 사회는 이미 포스트모더니즘 문화가 지배했던 사회다.

고전과 문학으로 준비된 C.S. 루이스의 기독교 인문학

적 전도는 포스트모더니즘을 극복해야 하는 현대 전도자들에게 좋은 모범이 된다. 데이빗 다우닝은 루이스가 근대에 가장 다재다능했던 작가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한다. 루이스는 분명하고 명쾌하게 논지를 전개하는 탁월한 작가였다. 루이스는 다양한 강연, 글과 서적을 통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루이스는 생전에 40여 권의 책을 썼다. 회심한 이후에 C.S. 루이스가 쓴 모든 책의 목적은 전도였다.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많은 책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았다. 우선 C.S. 루이스는 개인적으로 분주했다. 옥스퍼드의 튜터 교수(Don)로 C.S.루이스는 빠

른 점에서 루이스는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C.S. 루이스가 전공 서적도 아닌 신앙 서적이나 소설을 출판하는 것은 가까운 R.R. 톨킨 교수 등의 반대가 심했다.

C.S. 루이스는 이런 악조건을 극복하고 전도를 위한 글을 쉬지 않고 썼던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그의 사명감이 다. 그는 회심 전도를 결심했고 쉬지 않고 전도 활동을 했다. 둘째는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긍휼과 뜨거운 애정이다. 긴 시간(15년)을 통해 회심했던 루이스는 회심을 갈망했지만 믿어지지 않았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영혼을 사랑했다. 셋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는 글을 썼다. 영혼을 섬기는 글쓰기는 루이스의 사명

이상의 영성〉에서 서신으로 양육과 돌봄을 실천한 루이스를 소개한다. 루이스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편지를 썼다. 심지어 24시간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도 답신을 썼다.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의 마음으로 썼던 루이스의 글은 많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 영국의 복음주의 진영을 대표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C.S. 루이스의 글을 읽고 루이스를 인정하였다. 제임스 패커는 “오늘날 루이스처럼 깊이 사고하는 그리스도인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며 루이스를 극찬했다. 루이스는 독자들을 소중히 여겼고, 배려했으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인간됨을 썼던 작가였다.

루이스는 탁월한 독서가였고, 탁월한 작가였다. 루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열심히 읽었다. 이때 쌓은 독서 습관을 루이스는 평생 유지했다. 루이스는 평생 책을 사서 읽고 모으는 습관을 지녔다. 아울러 C.S. 루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를 실천했고 각 학교의 교사들로부터 글쓰기에 대한 칭찬을 들었다. 루이스는 평생 글쓰기를 실천했고 수많은 편지, 에세이, 논문 등을 남겼다. 급속하게 세속화되는 영미 사회에 C.S. 루이스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루이스는 ‘지성인의 전도자’로 손색이 없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성실하게 글을 썼고 많은 영혼을 섬겼다. C.S 루이스의 뜨거운 영성과 냉철한 지성을 닮아 냉랭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이겨냈으면 좋겠다.

Kangtg1207@gmail.com

이요 사역이었다. C.S. 루이스의 신실한 글쓰기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이 그의 편지 쓰기에서 나타난다. 루이스는 독자나 라디오 청취자들이 보내는 편지에 성실한 답장을 보냈다. 라일 도싯(Lyle W. Dorsett)은 〈C.S. 루

매일가정에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눅 5:12-13) 찬 324장

주님께서 나병환자를 구원하십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시자, 그 믿음을 따라 주님에게 나온 것이다.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으나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와 고백한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고백한 것이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말을 하여야 한다. 육신에서 나타나는 사망의 말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록 그 믿음을 받았을지라도 그 믿음을 부정하는 육신의 생각이 나타나는 법인데 나병환자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말 한 것이다. 그 결과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영광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

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심 (눅 5:20-25) 찬 326장

예수님은 믿음을 보신다. 즉 주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죄 사함도 믿음을 통하여 받게 하신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 없고 받을 수도 없기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로 사는 것이다. 주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몸을 치

료하시며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신다. 내 믿음대로 치료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치료하심을 정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몸의 치료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그대도 모시고 높이고 그 뜻을 섬기는 믿음에 있다. 나 자신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나타내신다.

수 죄인을 구하여 내시는 주 (눅 5:27-32) 찬 329장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가 그를 부르신다. 그리고 레위의 마음에 주인 노릇하는 사망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자로 구원하신 것이다. 레위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던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는 자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은 자신은 거룩한 자요, 죄인이 아

니라고 하는 사망의 생각의 포로로 사는 자들이다.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다. 죄가 하는 일이다.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레위를 부르시어 주님이 그를 죄에서 구하여 내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두셨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목 안식일의 주인 (눅 6:1-5) 찬 384장

안식일이지만 죄인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 죄 안에서 안식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만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사망의 것을 누리지 말고 주님을 누림이 안식을 누리이다. 일평생 수고의 멍에를 메고 사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 안식을 받은 자들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안식으로

회복함을 받는 날이다. 율법이 아니라 안식 되시는 주님의 것을 누림으로 비로서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노동을 하지 않아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건 아니다. 안식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누림으로 안식의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금 죄 안에 사는 자들 (눅 6:6-11) 찬 406장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영적 어둠으로 잡혀 있으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죄 안에서 죄의 역사 안에서 살며 해매는 자가 있다. 회당에 같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 생각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

는 자이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의 매임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다. 여전히 악한 생각의 포로가 되어 예수님을 고발할 그 생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겉으로는 거룩한 자로 가르치는 자로 있지만 악한자요 죄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 어둠 안에 있는 자이며 죄 안에 사는 자들이다. 여전히 멸망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

토 주님의 능력으로 (눅 6:17-19) 찬 436장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알고, 예수님에게 와서 만지려고 한다. 죄인에서 죄가 나타나고 사망하게 하는 것이 나타나 사람에게 임함 같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능력으로 사망에서 풀려주고 일으켜 주신다.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며 구원하시는 것이다. 오늘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

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구원을 이루신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주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오늘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에 있는 자가 있기도 하지만 영적 질병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음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체로 살아야 한다.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4)

제임스 구 목사
(그레이스비전스쿨 대표)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도구 활용

Generative AI (생성형 AI) 도구들에 대한 종류와 목회와 선교적 활용(3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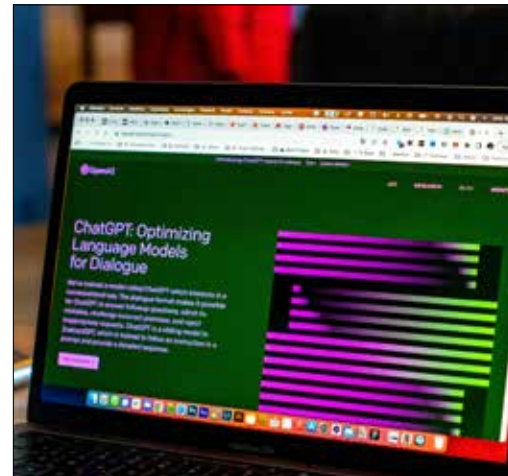
6. Image to Text (ITT) AI 기술

Image to Text (ITT) AI 기술은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이미지 속 글자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대표적인 예는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으로, 이미지에 포함된 문자나 단어를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ITT AI 도구는 문서 디지털화, 이미지 데이터 추출, 이미지 내 텍스트 검색, 이미지 기반 문서 관리 등에 활용됩니다.

기본 OCR 기능은 문서 디지털화에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서, 신문, 잡지와 같은 인쇄물에서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 기반 OCR은 복잡한 배경이나 저화질 이미지에서도 정확히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어, 의료기록, 고대문서, 사진 속 텍스트 인식에 유용합니다. 문맥 인식 기반 ITT 기술인 Scene Text Recognition (STR)은 이미지의 배경을 고려하여 거리의 간판, 포스터 같은 실생활 장면의 텍스트를 인식합니다.

ITT 기반의 AI 기술들을 활용하여 교회 내에서 오래된 서류나 혹은 문서, 성경 교재, 선교 기록과 사진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ITT AI 도구는 효율적인 관리와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또한, 목회자는 오래된 설교 자료 혹은 성경 주석 자료들을 이미지로 저장한 후 ITT AI를 통해 텍스트로 변환하도록 지원해 줌으로 손으로 쓴 설교 원고 자료 혹은 성경 구절 혹은 주석 등을 검색하고 복사하여 설교 본문을 위한 노트 혹은 스크립트에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또한, 외국어로 된 신앙 서적이나 자료의 텍스트를 ITT AI 도구를 통해 추출하고 번역하여 현지 교회와 선교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TT AI 도구와 TTA(Text to Audio) 기술을 결합하면 이미지로 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전달할 수 있어, 시각적으로 불편한 성도들에게 효과적인 전달이 가능하게 합니다.

ITT AI 도구로 Google Vision API는 사진이나 스캔본에서 텍스트를 인식해 번역, 분석이 가능하며, 다국어 선교 자료를 만들기 좋습니다. Adobe Scan은 손쉽게 종이 문서를 스캔하고 OCR을 통해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어 문서



의 디지털 보관 및 공유에 유용합니다. Microsoft OneNote: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문서로 저장할 수 있어, 설교 노트나 선교 일지를 정리하는 데 편리합니다. Evernote는 노트 작성 및 관리 기능과 함께 OCR 기능을 제공해 손글씨나 이미지의 텍스트 인식이 가능합니다.

7. Image-to-Image (ITI) AI 기술

Image-to-Image (ITI) AI 기술은 기존 이미지를 새로운 형태로 변환하거나 원하는 스타일이나 사용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재생산하는 기술입니다. ITI 기술은 입력 이미지의 시각적 요소를 보존하면서도 스타일, 구조, 색상, 질감 등을 변환하도록 지원해 줍니다. 즉 ITI AI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그림이나 사진을 형태로 변경하거나 손상된 이미지를 복구하거나, 기존 이미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여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스타일 트랜스퍼 (Style Transfer) 기술은 한 이미지의 스타일을 다른 이미지에 적용하는 기술로 사진을 특정 화가의 화풍 혹은 만화, 수채화 스타일로 변환해 줍니다. 이미지 리페어링 / 복원 (Image Repairing / Restoration) 기술은 손상된 이미지나 오래된 사진을 복구하거나 선명하게 만드는 기술로 역사적인 자료나 희미한 이미지의 복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 변환 (Image Generation / Manipulation)도구들은 입력 이미지를 활용하여 부분적인 변형을 하거나 추가 요소를 반영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로 기존 인물의 표정, 배경을 바꾸거나 특정 부분을 제거하거나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dr.jameskoo@yahoo.com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섀로트 예배당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윌리엄스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 선교

96.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50가지 방법

남편은 아주 이상하고 무척 미스 테리한 존재입니다. 남편은 때로는 친구, 동지, 평생펜수, 아들, 탁구공 같은 다양한 얼굴을 가진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내 남편을 제대로 알아야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 노력이 남편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남편을 속속들이 아는 것은 이미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첫걸음이며,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돈을 벌고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 남편의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 대신 남편에 대한 사랑과 관심, 이해와 감사, 인정과 칭찬,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남편의 사랑스러운 아내로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많은 자료 중에서 선택, 편집하여 소개합니다.

1. 때로는 엄마의 마음으로 품어 주어야. 남자는 어렵고 힘들 때 어머니의 위안을 원합니다. 아내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합니다.

2. 오직 그만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라. 남자에게는 간섭받지 않고 온전히 쉴 수 있는 자기만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3. 마흔에 시작되는 남자의 사춘기를 이해하라. 40대 전후 남성 호르몬의 급감과 여성호르몬의 증가로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우울증의 괴로움을 남편이 스스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4. 남편 죽이는 비교 평가를 금하라. 아내가 남편을 다른 집 남편들과 비교하는 것은 남편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5.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남편을 어린아이를 다루듯 먹이고, 재우고, 잔소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6.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해라. 부부간 원활한 대화를 원한다면 일단 설교나 설득, 논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며 존중해야 합니다.

7. 출퇴근 시간 남편을 현관에서 안아주어야.

8. 지금 당장 MBTI 검사를 하라. 부부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MBTI 검사를 통해 두 사람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9. 양복 입은 남편 손에 음식물 쓰레기를 들리지 마라. 껌은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남편의 사랑을 폄하하는 것은 지독한 자기애에서 비롯된 억지입니다.

10. 남편의 친구가 되어라. 힘들 때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친구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가끔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부부관계에서 벗어나 비밀 없이 말할 수 있는 편한 친구 사이가 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11.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록하라. 남편으로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아빠가 되었던 순간과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12. 부부에 대해 공부하라.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남편의 마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남자의 심리구조는 어떤지, 또 남편 입장은 어떤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13. 남편의 눈물을 놀리지 마라. 때때로 흘리는 남편의 눈물에 관대해져라.

14. 당연한 일도 미안해하고 감사하라.

15. 남편의 눈치를 살피라. 대화는 언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남편의 기분과 상태, 장소와 시간 등을 따져보고 말을 건네는 게 좋습니다.

16. 남편을 위해 돈 벌 공리를 해라. 남편은 물론 가족의 삶을 위해 크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돈 벌 공리도 해야 합니다.

17. 바쁜 남편을 위해 시간을 읽어라. 항상 바쁘고 피곤한 남편을 대신해 책을 읽고 남편에게 화 제 삼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줄거리를 설명해주세요.

18. 남편과의 트러블을 부모님께 이르지 마라. 남편과의 트러블은 가급적 부부 선에서 해결하세요.

19. 과외 선생, 손님보다 남편을 챙겨라. 과외 선생과 손님은 한때만 보는 사람이지만, 남편은 그보다 더 오래 당신과 가족을 지킬 사람입니다. 과외 선생이나 손님을 챙기듯 남편도 챙겨주세요.

20. 아내들이여! 잠자리에서 적극적으 남편을 리드해라.

21. 한 달에 한 번 남편을 위한 날을 만들어라. 남편의 월급날을 남편의 날로 정하고 온 가족이 함께 가정의 노고를 맡겼 치하하자. 남편이 평소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탁을 차리고 적은 액수라도 용돈 외에 금일봉을 하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22. 남편을 위해 옷을 차려 입으라. 가끔은 남편을 위해 멋지게 옷을 차려입도록 노력하세요.

23.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로맨스에 힘쓰라. 남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로맨스는 사치스러

울 필요가 없고, 작은 사랑의 몸짓만으로도 남편이 특별하다고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24. 성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당신의 성생활을 흥미롭고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은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5. 그에게 개인적인 공간도 제공하라.

26. 특별한 코너 테이블 예약하라.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가서 특별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세요. 부부간의 의사소통, 남편의 건강해소와 재충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7.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배우라. 음식은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요리로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는 묘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28. 남편이 당신을 위해 해준 일에 대해 감사하라.

29. 사랑 표현을 주저하지 마라. 때때로 그에게 키스하고, 안아주고, 껴안아주십시오.

30. 긍정과 행복을 발산하라. 남편이 슬플 때 집안의 긍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31. 친절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라. 남편과 친절하고 다정한 어조로 이야기하십시오.

32. 남편을 위로, 격려하라. 일로 인해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위로, 격려해주는 것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33.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라.

34.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라. 남편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거나, 괴롭히는 것이 있더라도, 항상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35. 러브레터와 스티커 메모를 사용해 보라. 남편에게 연애 편지나 작은 사랑의 메모를 써서 사랑과 애정을 다시 불러일으키십시오.

36. 남편의 취미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라. 남편의 취미에 관심을 보이면 그의 기분이 좋아지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유대감을 형성하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37. 남편의 가족을 당신의 가족으로 만들어라. 남편의 가족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남편은 즉시 행복감을 느끼고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38. 집안일을 함께 하라. 집안일의 책임을 공유하십시오. 남편이 집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기회가 생기면, 당신과 더 많은 유대감과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39. 휴가를 떠나라. 남편이 가고 싶어하는 장소로 휴가를 떠나면, 그를 활활하게 만들고 일상적인 활동, 일, 일상의 단조로움으로부터 충분한 휴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40. 선물로 그를 만지라. 남편에게 어떤 선물이라도 사주면서 그를 애지중지하고 왕처럼 대하면 그는 좋아할 것입니다.

41.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남편을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남편을 화나게 짜증나게 하고,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남편도 바뀝니다.

42.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되지 마라. 모든 남편의 가장 큰 악몽은 잔소리하는 배우자입니다.

43. 비난 게임을 하지 마라. 행복한 배우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행복한 배우자는 또한 파트너를 성급하게 비난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44. 사소한 문제에 매달리지 마라.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고 당신을 더 사랑하고 싶다면 작은 짜증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45. 남편을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드라. 부부간에 비밀이 있지만, 친한 친구간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46.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신뢰하는 것이다. 남편을 믿고 모든 단계에서 그를 의심하지 않으므로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고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47. 항상 옳을 필요는 없다. 사소한 논쟁이 본격적인 싸움으로 번지면, 옳은 것보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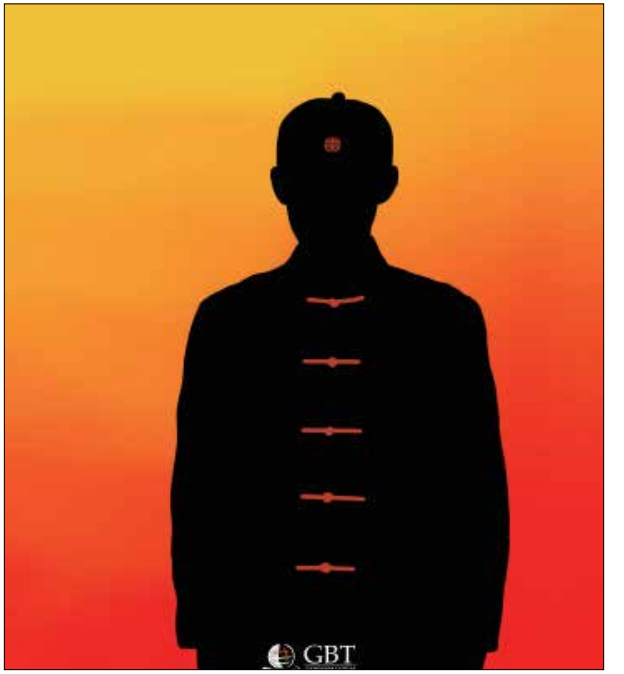
48. 애정표현을 일관되게 유지하라. 바쁜 엄마이거나 일하는 아내라도 남편을 위해 시간을 내서 사랑과 애정을 듬뿍 쏟아주세요.

49. 시어머니를 행복하게 하라. 시어머니와 며느리, 즉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남편은 괴롭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행복하게 하면, 남편이 마땅히 행복하게 됩니다.

50. 유지비가 적게 드는 아내가 되어라. 남편은 기념일의 선물과 외모관리 위한 치장비 등의 유지비가 많이 드는 파트너를 두려워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남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이디어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국

▲ 종족명
남부구이양마오종족

▲ 인구
약 28,000명

▲ 종교
민속 종교 95%, 무교 5%, 복음화율 0%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기타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필
마오족 중 하나로 인식되다가 1995년에야 학자들에 의해 하나의 독립된 종족으로 인정받았다. 용의 정령을 두려워하여 섬기며, 농작물을 이롭게 하는 정령에게도 제사를 지낸다. 1949년 이전, 몇몇의 선교사를 통해 신자가 생겼으나 여전히 전체 숫자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한 수이다.

▲ 기도제목
1.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 들지 못한 대부분의 남부 구이양 마오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비록 소수종족이지만 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손길이 많이 일어나도록
2.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겨서 성경 번역이 시작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안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891, www.thanksgiv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평상)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 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Tel: (714)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Anaheim, CA 9280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주일 4부(청오이 예배): 오후 2:00 영아권 (장소: KDC, 킴벌리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714)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pcsl.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영아예배: 오전 9:00, 11:00 일요예배: 오후 1:15(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 (949) 854-4010 / biblehallbkc.com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교회 <td>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매일오전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td>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매일오전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실비치 사랑교회 (Sea Beach Ser-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구구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실비치 리치웨이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관리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역: 1. 복음상담 2. 가정사역 세미나 3. 알뜰사역 4. 네트워킹 사역 Tel: (213) 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온라인예배: 오후 7:30(월-토) 24시간 온오프 Tel: (714) 446-6202,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o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아예배(성인/영년): 오전 11:45 송고동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alscsamsungch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es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YM장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lorancecg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C-복음포럼 살(주일): 오전 9:30 화요 3.3.3기도회: 매일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TEC-성령을 한눈에(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Tel: 213-38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이성자기자의 바이블 에세이

“살아가며 절망하지 않는 이유”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한 성경의 표현은 참으로 소박하고 정다운 맛을 느끼게 해서 좋다. 질그릇은 화려하게 광택을 내지 아니하고 모양새도 그리 곱지 아니하며 쓰임새도 특별하지 않다. 질그릇은 그야말로 서민적인 모습의 수수한 사람의 맛을 보여주는 겸허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깨어지기 쉬운 것이 질그릇이요, 한번 깨어지면 다시 고쳐 쓸 수 없는 것이 질그릇이다. 그런데 질그릇은 아무 데나 갖다 놓고 사용해도 잘 어울리는 그 친근감이 좋다. 질그릇은 언제 보아도 소박하면서도 또한 고상한 품위를 지니니 그 신비

함이다 갖다 버린다. 버려진 질그릇 조각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밟혀서 가루가 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 아무도 눈여겨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서 조용히 흙으로 돌아가는 질그릇이다. 사람은 본질이 흙이요, 질그릇 또한 흙이다.

왜 성경은 사람을 이렇듯 질그릇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가? 그만큼 사람은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임과 동시에 또한 가장 가치 있고 언제 어디나 있는 강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번 깨어지면 버릴 수밖에 없는 하드레이면서 또

무 쓸모없는 존재이면서 가장 쓸모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은 가장 천한 존재이면서 가장 아름답다.



제 모습을 지녀야 한다. 사람은 자기의 소리를 내야 한다. 사람은 제 갈 길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뜻 있는 사람이 되고, 힘

온다. 그러면 당장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이 된다. 사람은 가끔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고 누구에게 호소할 사람이 없다. 혹여 누구에게 호소해도 번번이 후회하게 된다. 사람은 의식주 생활을 위하여 사실 먹고 살 일이 막연할 때가 있다. 또한 세상이 되어 가는 꼴을 보노라면 가슴이 터질 듯 한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사람은 가끔 핍박을 받을 때가 있다. 정치적인 핍박, 경제적인 핍박, 사회적인 핍박, 인간적인 핍박, 신앙적인 핍박을 받는다. 사람은 가끔 어떤 강

릇 같은 존재이나 내 마음속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배는 무엇인가? 보배는 첫째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나의 믿음이다. 둘째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이다. 셋째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나의 소망이다. 넷째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는 별레 먹은 낙엽을 바라보면서, 갈가리 찢어져 사람들의 발길에 짓밟히는 길바닥의 나뭇잎을 바라보면서 낙엽 같기도 하고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나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결단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4:7)

함이 마음을 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셨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다. 그리고 깨어지면

언제나 다시 지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 두 극단을 오고 가는 존재이다. 사람은 아무 존재도 아니면서 엄청난 가치가 있다. 사람은 가장 작은 존재이면서 가장 큰 위인이다. 사람은 아

사람은 마땅히 제 가치를 알아야 한다. 사람은 제 자리를 알아야 한다. 사람은 제 몫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때를 알아야 한다. 사람은 제 색깔을 내야 한다. 사람은

있는 사람이 된다.

사람은 가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사방에서 압축되어 오는 긴장감과 억압이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며 좁혀

한 힘에 따라서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도 있다. 강한 완력에 의해서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깨어질 수밖에 없다. 사람이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가?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나 비록 질그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친다. sjkcdc@hanmail.net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처음 유학길에 오를 때, 저에게 유학가라고 말씀하시고 유학길에 오르도록 저를 위해 길을 열어주셨던 저의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이셨던 스승, 김호식 박사님께서 제가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제게 해주셨

던 말씀입니다.

"가서 공부할 때 흑시라도 식사 초대할 받거든 가서 대접받는 것에 취해있지 말고 식사를 끝내고 망서리지 말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도록 해. 그러면 반드시 부르고 또 불러 줄거야."

스승께서 해 주신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부엌의 주인공은 그 가정의 아내되는 분은 물론이지만,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해야 하는 남편되는 분이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해 하던지, 정말 자주 불러줘서 좋은 시간들을 갖고는 했던 기억이 지금도 저의 마음에 좋은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그렇게 대접을 받으러 가서 설거지를 즐겁게 했던 저의 마음에는 이기적인 것이 있었 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해서 저에게 저도 모르게 자리잡은 것은 설거지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한국을 방문하면 형수들 설거지를 해서 형님들이 저를 나무랄 정도였 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회 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하는 설거지를 형님들이 설거지를 하신다고 부엌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스턴에 가셔도 아들 집에 21 일을 머물며 종종 기회를 만들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성화

를 하고 아내가 나서서 말리지만 "밥 먹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소화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 움직이니 운동도 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니 얼마나 좋으냐"면서 아주 즐겁게 설거지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설거지를 한 것은 어떤 기대가 제 마음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 지난 21일 간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시애틀 집으로 돌아와서 한밤을 지내고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준비한 것으로 아침을 먹고 있는 제게 이런 생각이 다가왔습니다.

“삶이 짧던지 길던지 함께



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의 삶이다."

이런 생각에 취해 있는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셨

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신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 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 구약주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주해하라 (사무엘하 23:13-17)
- 신약주해: 개혁신의 관점에서 주해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13-18)
- 논문제목: 현대적 시대 교회 밖 성도들의 회복과 양육전략을 개혁신의 관점에서 논하라
- 설교본문(하나 택일): 구약 - 레위기 16:1-10 제물/ 광야로 보내진 아세셀 염소 신약 - 요한복음 12:27 제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한 부분은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분은 Pdf파일로 서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전통진구약주해.pdf)
-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5년 3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5년 3월29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합격자 발표는 49회 총회기간(5월 27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5년 5월 26일(월)~27일(화)
장소: Grandover Resort & Spa, A Wyndham Grand Hotel
1000 Club Rd, Greensboro, NC 27407 / (336)394-1800

제출서류

-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5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이력서(약력과 자제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 명함판 사진 2장
-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전통진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5,26) 사용할 숙소를 예약할 것.
-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전통진목사 (Rev. David Chun)
주소: 2201 Gramercy Way, Mt. Laurel, NJ 08054
전화: (856) 359-5345 / 이메일 djchun5882@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김요섭목사 (Rev. Joseph Kim) redeemer@gmail.com
고시부 서기: 전통진목사 (Rev. David Chun) djchun5882@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권혁천 목사
서 기: 김대업 목사
고시부부장: 김요섭 목사
고시부서기: 전통진 목사